세션 1 (지속가능한 관광) 장소 : 경희대학교 본301호

시간	발표논문	발표	토론	좌장
16:00 ~ 16:20	· Overtourism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연구 - 해외사례 및 연구를 중심으로 -	한학진(한남대) 최현정(백석대) 신윤식(한남대)	전혜진(한양사이버대) 김범진(배화여대)	오석윤 (극동대)
16:20 ~ 16:40	· 한국세시풍속 반보기(半途相会)의 발굴과 관광상품화 방안	이웅규(백석대)	박근아 ((주)한국관광콘텐츠 개발) 나윤서(백석대)	
16:40 ~ 16:50	· Break time			
16:50 ~ 17:10	· 관광학과 대학졸업 청년 취업자의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사회계열 주요학과와의 비교 -	안소연(세종대) 임은순(세종대)	이승헌(서울신학대) 최병호(신한대)	김혁수 (청주대)
17:10 ~ 17:30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관광정책의제 도출 - 흰여울문화마을을 중심으로 -	이새미(동아대) 유승의(동아대)	심성우(백석예대) 전정아(백석예대)	

Overtourism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연구

- 해외사례 및 연구를 중심으로 -

Sustainable management of overtourism tourist destinations

- Focusing on overseas case studies & researches -

한학진* · 최현정** · 신윤식***
Han, Hag - chin · Choi, Hyun - jung · Shin, Youn - sik

ABSTRACT

As the problem of overtourism continues and prolongs, various problems and phenomena occur in the cities, regions, and tourists in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effects and solutions of these phenomena, focusing on overseas cases and studies on the phenomenon of overtourism. In other words,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the definition of overtourism, its cause analysis, and its effects and countermeasures. Overseas cases include Spain, Croatia, and Japan. Overseas research has been introduced since 2017 including overtourism, tourismphobia, anti-tourism, overcrowding. In conclusion, individual countries or cities, which are experiencing overtourism, are making policy efforts to manage and prevent sustainable tourism. Through these results, it can be applied to tourist spots that show signs of domestic overtourism.

key words : overtourism, overcrowding, tourism phobia, anti-tourism

*** 한남대학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 교수,** e -mail: hagchin@hnu.kr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호텔관광경영학과 부교수,** e -mail: chj043@bu.ac.kr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 -mail: aquariu@hnu..kr

Ⅰ. 서 론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관광의 문제는 그 동안 너무 성장위주의 정책과 관광지 관리, 운영을 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적성장위주의 정책이 새로운 형태의 관광트렌드와 맞물리면서 특정도시와 관광지에서 과잉혼잡(overcrowding)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렴한 관광, 기술 및 온라인 정보 출처, 단체휴일관광에 의해 유발되는 과잉 - 이동성(over - mobility)을 비롯하여 일부 목적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우연한 수요 증가가 과잉관광(overtourism) 현상의 근원이다(Martin, Martinez, & Fernandez, 2018; Singh, 2018).

2017년 9월에 실시 된 유럽, 아시아 및 아메리카 24개국 29,000명의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월드 트래블 모니터(World Travel Monitor)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국제 관광객의 약 25 %는 작년에 목적지가 "너무 혼잡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은 여행 및 관광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대륙 중에 하나이다. 2017년 여름에 유럽(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의 많은 지역에서는 반 관광(anti - tourism)운동(Leadbeater, 2017; Richardson, 2017)의 출현을 목격했으며, "Overtourism"은 2017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휴일명소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베니스, 바르셀로나, 로마 등 많은 관광지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지속적이고 장기화되면서 해당 도시 및 지역,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 및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는 소속감과 장소감이 상실되거나 관광으로 인한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며, 둘째, 관광객의 관점에서는 관광경험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셋째, 해당지역의 측면에서는 공공장소가 개인화되거나 인프라의 과부하가 발생하며, 관광자원의 훼손과 파괴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즘 포비아, 안티투어리즘, 디즈니피케이션 등의 새로운 용어가 지난 2017년 이후 생겨나고 있으며, 오버투어리즘을 핵심 키워드로 한 해외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에 관한 해외사례 및 연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이로 인한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을 분석하여, 국내관광지에서 오버투어리즘 전조현상을 보이는 관광지에 대한 진단과 평가 자료로 적용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오버투어리즘의 정의 및 원인

과잉혼잡(Overcrowding)과 관련된 문제는 소외된 지역 주민에서 과부화된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종류의 확립된 목적지와 떠오르는 목적지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잉관광의 증상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공원, 해변 및 박물관과 같은 국가, 지역, 도시 및 개별 사이트 등 관광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etkar, (2017).

‘ Overtourism ’ 의 용어자체는 2012년에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정의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2016년 8월 Skift의 CEO 겸 창립자 인 Rafat Ali는 아이슬란드 관광의 영향에 대한 기사의 서문(Overtourism의 다가오는 위험)의 제목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오버투어리즘은 간단히 말해서 특정 목적지에 방문객이 너무 많을 때 오버투어가 발생하는데, ‘ 너무 많습니다 ’ 라고 하는 것을 물론 주관적인 용어이지만 지역주민, 사업주 및 관광객의 관점에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좁은 도로가 관광 차량으로 막힐 때, 야생생물이 깜짝 놀라게 될 때, 관광객들이 인파로 인해 랜드 마크를 볼 수 없을 때 등이 과잉관광의 징후라고 판단된다(Ditton, Fedler, & Graefe, 1983).

다시 말해 과잉관광은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관광객, 또는 방문객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해당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들의 경험의 질이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지나치게 많다 ’ 라는 기준과 일정한 기간에 관한 기준, 그리고 ‘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 ‘ 라는 판단기준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어떤 목적지'로 관광객의 수가 현지인의 수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Singh, 2018). Seraphin, Sheeran, and Pilato(2018)은 목적지가 수용력으로 알려진, 관광개발에 대한 최대한도에 도달했을 때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Singh(2018)는 지역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하여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없을 때 과잉관광이 의심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과잉관광은 주인이나 손님, 현지인(거주민)과 방문객이 목적지에 너무 많은 방문자가 있어 경험의 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많은 수의 방문자가 반 (反) 관광 운동과 관광 혐오증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반 관광운동과 관광 혐오증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진정한 만남의 부재의 결과로 판단된다(Gali, Camprubi, & Donaire, 2016).

이러한 오버 투어의 주요 원인으로 첫째, 개발 도상국가에서 점점 더 중산층이 부상하면서 이들이 가처분 소득을 여행에 쏟아 붓게 되면서 야기되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최근 세계 중산층이 현재 약 37 억에 이르고, 향후 5년간 매년 1억 6000 만 명이 이 집단에 가입 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중국인의 해외여행 참여 인원의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둘째, 에어 비앤비와 같은 숙박시설이 대량으로 증가한 것도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수천 개의 침대가 갑자기 전 세계의 도시와 관광지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아파트 임대료가 인상되고 지역 주민들이 밀려 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저렴한 항공료도 오버투어리즘이 한 몫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럽 내의 단거리 여행에서 저비용항공사의 노선확대 등은 관광수요를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 넷째, 대형 유람선(크루즈)은 오버투어리즘의 또 다른 공헌 요인으로 판단된다. 수천 명의 승객이 매일 항구 도시로 흘러 나와 저녁 시간에 배로 돌아오며, 목적지에 거의 머무르지 않고, 다른 방문객은 물론 거주자에게 불쾌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및 관광청의 양적 성장위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로 판단된다. 오랫동안 더 많은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좋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는 점이다(Feliciani & Nishinari, 2018). 해외사례를 통해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중산층의 증가, 공유숙박시설의 확대, 저렴한 항공료, 대형 유람선의 입항, 그리고 정부나 해당도시의 관광정책으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버투어리즘 원인들이 국내 오버투어리즘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개발관광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McKinsey & Company and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2017).

2. 오버투어리즘의 영향 및 현상에 관한 연구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야기되는 영향 및 현상은 다음과 같다. 과잉관광의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교통 체증, 경관의 저하, 특정관광지에서의 혼잡, 기물 파손 행위 등이 도시 혹은 관광지에서 발생한다(Singh, 2018). 과잉관광은 또한 몇몇 목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위험을 초래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Seraphin, et al., 2018)을 미치거나 정체성의 상실(Routledge, 2001, Seraphin, Sheeran, et al., 2018)로 이어지기도 했다. 선행 연구에 열거된 과잉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주민들은 더 이상 관광객을 반기지 않으며, 관광객에 대한 증오 또는 거부는 '관광 혐오증'이라고 불린다(Singh, 2018). Calzada(2018) & Seraphin, Sheeran 외(2018)는 관광 혐오증은 사회 내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징표임을 제시하였다. 사실,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큰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관광 산업이 창출하는 소득보다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Seraphin, Sheeran, 2018: Seraphin, Platania, Spencer & Modica, 2018). 관광의 범주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관계는 주민들의 이익이 비용 이상인 경우에만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의 태도는 비용이 이익보다 높을 때 변한다(Haifeng, Jing, & Mu, 2012). 위의 사실을 토대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에 양질의 상호 작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광 혐오증과 반(反) 관광 운동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잉관광의 맥락에서, 현지인의 수를 초과하는 관광객 수(Singh, 2018) 때문에 관광객들은 서로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관광객(Singh, 2018)의 수가 많아 현지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장소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을 피하게 된다(Milano, 2017). 이로 인해 접촉 가능성이 줄어들고, 두 그룹 사이의 접촉의 부재는 '베니스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요약 될 수 있다.

‘ 베니스 증후근 ’ 은 흔히 관광 포화 상태와 지역민이 주변의 도시 중심지로 이주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Milano, 2017). 많은 반 관광 운동이나 저항(Routledge, 2001)은 유럽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 관광 시위대는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영국과 크로아티아에서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Tapper, 2017). 대부분의 관광 명소는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어 집중된 방문자 집단은 정체, 긴 대기 행렬 및 방문자 경험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경쟁자(예 : Airbnb)가 생겨나면서 관광 개발의 도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연적 및 문화적 명소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즘 포비아, 안티투어리즘, 관광공해, 디즈니피케이션, 베니스증후군 등의 새로운 용어가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 자본에 의한 상업적 관광지화로 관광객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현지인들의 삶을 침범하여 그 결과 오랫동안 운영해 온 가게의 문을 닫게 하거나 주민들을 쫓겨나게 하는 등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 투어리스티피케이션 ’ 으로 이어지고 있다(Milano, 2017).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은 ‘ touristy(관광지화되다) ’ 와 지역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 생활터전에서 내쫓기는 현상인 ‘ gentrification ’ 의 합성어이다.

Ⅲ. 해외사례 및 연구동향

1. 오버투어리즘 해외사례

오버투어리즘 관광지를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운영하기 위한 해외사례는 다음과 같다. 스페인은 2016년 12월 파리에서 COP21 협약에 서명 한 지 수 개월 만에 2017년을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르셀로나에서 관광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지방 정부는 숙박 공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 수를 할당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고, 관광객의 분산을 개선하고, 호텔 확장을 억제하고, 이전의 무료 관광 명소에서 티켓 팅을 도입하는 등 가격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페인의 유명한 휴양지인 마요르카섬에서도 격렬한 안티투어리즘(반관광) 시위가 벌어졌다. 마요르카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비참한 삶으로 몰아가는 대량관광에 반대한다는 지역주민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도시에서 테러가 빈발하면서 마요르카가 안전한 관광지로 급부상했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업의 급속한 확산이 주거지를 관광지로 만들었고 소음과 쓰레기, 오르는 집값 등이 지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어 관광의 권리와 주민의 정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Gordon, 2017).

한 해 2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베니스에서는 하루 평균 6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고 있다(World Economy Forum, 2017). 베니스뿐만 아니라 레이캬비크, 산토리니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현지주민

들은 “너무 많은 관광객들(TOO MANY TOURISTS)!”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Tourtellot, 2017, 10, 29). 베네치아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당국이 제정한 조치(과세, 사전 예약 시스템, 대체 노선 만들기, 호텔 침대 수 제한 등)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Russo, 2000).

두브로브니크 (Dubrovnik) 항구는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안(Adriatic coast)으로, 이 도시는 킹스 랜딩 (King 's Landing)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관광 산업의 호황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오버투어리즘을 유발했고, UNESCO는 세계 유산 지위를 없애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시는 현재 방문 할 수 있는 관광객들과 유람선 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도 몇 몇 도시와 지역에서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에어비앤비 ’와 같은 숙박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찾는 민박의 경우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관광객 수용을 위한 민박집의 증가로 빈집이 줄면서 집세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해체하고 공동화시키고 있다. 또한 방일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현지 교통사정은 물론이고 일본 특유의 오른쪽 운전석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터카를 험하게 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홋카이도 비에이에서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꽃밭과 보리밭을 마구잡이로 드나드는 통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대마도의 경우 인구가 약 3만명 정도인데, 한 해 동안 대마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40 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객의 방문이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현지 일본인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2018년 도이 테테(Duterte) 대통령은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을 폐쇄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은 설탕 같은 하얀 모래, 활기찬 야경과 풍부한 수상 스포츠로 인해 매년 약 2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지였다. 이에, 관광객들의 과잉혼잡으로 인한 쓰레기 더미와 바다로 흘러드는 재앙수준의 하수로 인해 섬의 단 기간의 폐쇄를 결정하였다.

2. 해외연구동향

오버투어리즘을 키워드로 한 해외선행연구는 지난 2017년을 유럽을 중심으로 몇 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ugues, Paul & Manuela, 2018).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ugues et al. (2018)은 오버투어리즘에 관해 베니스를 대상으로 Regional Spotlight(지역 스포트라이트)의 과잉관광 문제와 목적지인 베니스의(생태학적) 생존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베니스에 대한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새롭게 개발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을 사용할 것과 이탈리아의 목적지 관리 계획에서 베니스의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타지마할의 보호를 위해 일부 홍보자료에서 제외되었듯이, 베니스의 특정관광지를 모든 홍보 자료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Weber, Stettler, Priskin, Rosenberg - Taufer, Ponnapureddy, Fux and Camp(2017)은 전 세계의 높은 관광 강도(밀도)를 지닌 목적지 사례 연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다른 관광 환경에 있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과잉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 목적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별한 초점은 관광개발의 동인, 도전과 혁신적인 솔루션뿐만 아니라 관광 수용력을 결정하는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수용력은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Santana - Jim‹nez, Y., Hern £ndez, J - M.(2011)은 관광객의 과잉혼잡에 관한 인식이 관광지의 호소(소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인구밀도 추정치를 사용하여 관광 지역의 과잉혼잡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섬의 최대 용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하고 이러한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자 하였고, 인구 밀도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면 관광지의 미래 발전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Seraphin et al.(2019)은 관광혐오증과 반 관광운동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기반 축제(CBF)를 제안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반 관광운동과 관광 혐오증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 간의 진정한 만남의 부재의 결과로, 지역기반 축제(CBF)에 방문객을 참여시키는 것이 반 관광운동과 관광 혐오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연구결론은 지역 주민들이 중요한 공간에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드는 혜택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 관광 운동과 관광 공포증이 출현했음을 강조하였고, 반 관광운동과 관광혐오증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CBF(지역공동체 기반의 축제) 잠재적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Seraphin et al. (2019)는 브랜딩과 오버투어리즘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하였다. 브랜딩이 오버투어리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목적지로의 방문을 유도하고 재방문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3. 해외사례 및 연구종합

해외사례와 해외연구를 통해 본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오버투어리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개별국가 또는 도시는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국가 및 도시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안 및 해결방안이 있으며, 국가 및 도시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객 수를 제한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관광지의 전체방문인원을 제한하거나 방문시간대를 조정(타지마할)하며, 성수기 이용 시 방문을 제한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특정관광지에서의 관광객의 통제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의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호텔의 객실 수(beds)와 숙박업소 수를 제한(바로셀로나)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에어 비 엔비와 같은 공유숙박시설이 난립함에 따른 관광객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방문관광객을 특정관광지에서 덜 인기 있는 지역이나 덜 붐비는 지역으로 유도하거나 덜 붐비는 지역에 랜드마크(명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광장(Piaza)으로의 접근 제한하거나 관광세 부과(입장료 올리기 등)하는 방안,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와 동반 혹은 지역전문가와 동반한 투어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여섯째, 크루즈 선박의 크기와 한 번에 상륙 할 수 있는 승객의 수에 대한 제한이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일곱째, 혼잡비용을 적용하여 계절별 가격이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며 방문객 명소, 박물관, 심지어 국립공원 등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여덟째, 관광수용력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포함하여 탈(디)마케팅의 일환으로 방문한 핫스팟에 대한 모든 마케팅을 중단하고 관광객 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관리 할 수 있는 다른 관광지를 홍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홉째, 이해 관계자 간의 더 나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은 모든 사람의 문제로 에이전트, 여행사, 유람선 운영자, CEO, 여행자, 지역 사회 및 정부 모두가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행업계가 현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관광 산업의 부작용을 보다 잘 측정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관광객으로 여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책임관광은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여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해외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이후 게재된 오버투어리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전체적인 논문의 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이 유럽의 베니스를 비롯하여 몇 몇 지역에 국한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주제로는 오버투어리즘과 브랜딩, 축제기반의 오버투어리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Bourliataux - Lajoinie, Dosquet, Del Olmo Arriaga, 2019). 등과 같이 연구의 주제가 제한적이며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오버투어리즘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다른 국가 및 도시를 대상으로 한 폭 넓은 향후 연구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시사점 및 결 론

본 연구는 2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오버투어리즘에 관한 전조현상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부정적영향이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중국, 일본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사례와 연구를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의 전반적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지역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크로아티아를 중심으로 사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2017년 이후 오버투어리즘이라는 키워드로 연구가 진행된 해외연구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 있는 관광(아이슬란드의 책임 있는 관광서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 있는 관광은 더 좋은 곳을 만들고 방문 할 수 있는 관광으로 지역 일자리의 창출, 자연 유산 및 문화유산 보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인프라 개선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자하는 것이다.

둘째, 관광지 수용력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용력은 환경, 유산,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 주민의 가정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용 할 수 있는 목적지 또는 관광 명소에서 관광객의 최대 수로 정의되는데, 개별관광지 혹은 도시의 수용력의 파악은 지속가능한 도시 및 관광지 경영의 필수요소임을 알 수 있다. 수용력 초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듯이, 관광지의 수용력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정부 혹은 지자체 단위의 오버투어리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 수를 줄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입안과 대안제시가 보다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예약제를 비롯하여 관광객 분산유도를 위한 신규 관광명소 혹은 코스개발, 출입시간 제한, 신규 숙박시설에 관한 제한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소개되었다고 판단된다.

넷째, 효율적인 가격정책도 오버투어리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탄력적인 가격정책, 관광세의 도입(부탄) 등에 관한 정책도 차별화 정책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이해 관계자 간의 더 나은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 홍보를 담당하는 관광청이 아니라 관광객이 관광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와 더 잘 협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이 중요한 이유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지의 훼손과 파괴가 미래세대가 우리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관광지의 보호와 보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이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연구가 국내에서 오버투어리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관광지에도 참고할만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Bourliataux - Lajoinie, S., Dosquet, F., Del Olmo Arriaga, J. l., (2019). The dark side of digital technology to overtourism: the case of Barcelona. Worldwide Hospitality and Tourism Themes, 11(5), 582 - 593.

Calzada, I. (2018). Local entrepreneurship through a multistakeholders' tourism living lab in the post - violence/peripheral era in the Basque Country. Regional Science Policy & Practice. https://doi.org/10.1111/rsp3.12130

Ditton, R. B., Fedler, A. J., & Graefe, A. R. (1983). Factors contributing to perceptions in recreational crowding. Leisure Sciences, 5, 273- - 288.

Feliciania, C., Nishinari, K. (2018). Measurement of congestion and intrinsic risk in pedestrian crowd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C, 91, 124 - 155.

Gali, N., Camprubi, R., & Donaire, J. A. (2016). Analysing tourism slogans in top tourism destination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6(3), 243–251

Gordon, Y. (2017). Lisbon's ‘we hate tourism’ tours teach visitors how to travel responsi - bly.http://www.independent.co.uk/travel/europe/lisbon - tourists - we - hate - tour - ismtours - locals - responsible - travel - portugal - a7919571.html,

Haifeng, Y., Jing, L., & Mu, Z. (2012). Rural community participation in scenic spot: A case study of Danxia mountain of Guangdong, China.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10(1), 76–12

Hugues, S., Paul, S., & and Manuela, P. (2018). Over - tourism and the fall of Venice as a destination.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9, 374–376.

Leadbeater, C. (2017). Anti - tourism protesters in Barcelona slash tyres on sightseeing buses and rental bikes.
https://www.telegraph.co.uk/travel/news/bus - attack - in - barcelonaadds - to - fears - as - tour - ism - protests - grow

Martin, J. M. M., Martinez, J. M. G., & Fernandez, J. A. S. (2018). An analysis of the factors behind the citizen's attitude of rejection towards tourism in a context of overtourism and economic de - pendence on this activity. Sustainability, 10(8), 2851

McKinsey & Company and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2017). COPING WITH SUCCESS: MANAGING OVERCROWDING IN TOURISM DESTINATIONS. REPORT. .

Milano, C. (2017). Overtourism tourism phobia. Tendency as global context locales. Retrieved 18.01.2018. from:
http://www.aept.org/archivos/files/ostelea_informe_overtourism_y_turismofobia.pdf〉

Petkar, S. (2017). Spain is quite full’ tourists urge to travel elsewhere as protests grip holiday hotspots. http://www.express.co.uk/news/world/840042/barcelona - spain - holidaysanti - tou - rist - protests - go - home - graffiti - violence - tui - travel,

Richardson, D. (2017). Suffering the strain of tourism. TTG@wtm.

Routledge, P. (2001). ‘Selling the rain’, resisting the sale: Resistant identities and the conflict over tourism in Goa. Social & Cultural Geography, 2(2), 221–240

Russo, A.P. (2000). The ‚vicious circle; of tourism development in heritage destinations, In Proceedings of 40th congress of the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Barcelona.

Santana - Jimenez, Y., Hernandez, J - M.(2011). Estimating the effect of overcrowding on tourist attrac - tion: The case of Canary Islands. Tourism Management, 32, 415 - 425.

Seraphin, H, Gowreesunkar, V, Zaman, M, Bourliataux - Lajoinie, S.(2019). Community based festivals as a tool to tackle tourismphobia antitourism movement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xxx (xxxx) xxx–xxx

Seraphin, H., Sheeran, P., & Pilato, M. (2018). Over - tourism and the fall of Venice as a destination.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9, 374–376

Singh, T. (2018). Is over - tourism the downside of mass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43(4), 415–416

Seraphina, H, Zaman, M, Olver, S, Bourliataux - Lajoinie, S, Dosquete, F. (2019). Destination branding and over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38, 1 - 4

Tapper, J. (2017). As touting for punt trips becomes a crime, is tourism overwhelming

Britain ' s cities. Retrieved 30.07.2017. from: 〈 http://www.theguardian.com 〉

Tourtellot(2017).

Weber, F. Stettler, J, Priskin, J. Rosenberg - Taufer, B, Ponnapureddy, S, Fux, S Camp, M - A, Barth, M. (2017). Tourism destinations under pressure Challenges and innovative solutions

한국세시풍속 반보기(半途相会)의 발굴과 관광상품화 방안

How to Discovering and Tourism Commercialize of Times and Seasons' Customs(Half View) in Korea

이웅규*
Lee, Woong - kyu

Ⅰ. 서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중에서 반보기(半途相会)와 연관된 민속을 발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서 관광상품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세시기』, 『한국의 세시풍속』,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한국민족문화대사전』, 『농가월령가와 월여농가 시』, 『한국의 세시풍속사전』 등의 문헌과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문헌에 소개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경도잡지(京都雜志)」, 「세시풍요 歲時風謠)」, 「동경잡기(東京雜記)」 등을 집중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분석한 연구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세시풍속은 민족의 오랜 역사성을 지닌 전통문화로서 그 역사성을 통해 민족이 지닌 다양한 문화요소 및 민족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준다. 세시풍속은 한 해를 단위로 해서 각기 절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모습을 말한다(김명자, 2005; 박석희, 2004; 정명철 · 김미희, 2014). 본 연구에서 발굴된 반보기는 지역관광의 현장에서 필요한 관광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관광상품화를 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이웅규(2019)의 한국호텔리조트학회 추계연합 정기학술논문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조교수**, unikorea@bu.ac.kr, 관심분야: 전시기획, 축제이벤트

Ⅱ. 이론적 배경

1. 반보기의 정의

반보기(半途相会)는 8월 추석 이후 농한기에 여성들이 일가친척이나 친정집 가족들과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회포를 푸는 풍속을 말한다. 원래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의 만남이 기원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반보기가 있다. 지역에 따라 중로보기(中路-), 중로상봉(中路相逢) 같은 한자식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에서 짐작되듯 당일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 경우 부득이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가 다시 그날 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애틋한 풍속이다(임재해, 2003; 정형호, 1996).

반보기와 관련되어 발굴된 민속은 총 388개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시기별, 주제별, 식물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시기별로는 계절별, 월별, 절기별, 세시기별로, 주제별은 사상, 예술, 문학, 교육, 식생활, 생활(衣/住生活), 의약, 놀이, 기타 등 9개 항목으로, 그리고 식물별로는 목본과 초본으로 나눈 다음, 과별, 수종별, 식용약용으로 구분하고 출현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절별로는 봄>여름>가을>겨울 순, 월별로는 1월>3월>5월>6월>9월(음력) 순, 세시기별로는 대보름>단오>삼짇날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주제어별로는 사상>놀이>식생활 순이었다. 식물별 조사결과 목본이 등장하는 민속은 127개, 초본은 101개, 목본과 초본이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는 54개 등 총 282개로 분석되었다. 등장하는 식물들은 과、종별로는 목본은 28과 69종, 초본은 30과 84종이 출현하고, 침、활엽수 분석 결과 활엽수는 23과 59종, 침엽수는 4과 6종, 대나무류는 1과 4종으로 나타났다. 출현빈도를 보면 목본 과별로는 장미과가 14수종 50개로 가장 많고, 수종별로는 69수종 중 소나무가 21개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과의 빈도수가 높은 것은 꽃과 유실수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관상과 식생활에의 관련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초본의 경우 콩>벼>보리>팥>찰벼>고추>무>쑥>참깨>수수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다. 과별로는 벼과가 14종 76개로 가장 많은데 벼>보리>찰벼의 순으로써 주식이 쌀임을 감안할 때 높은 빈도수를 이해할 수 있다. 식용과 약용을 분류한 결과는 총 84종의 초본 중에서 식용은 15과 30종, 식용과 약용에 모두 쓰이는 초본은 14과 25종, 약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13과 18종으로 분석되었다.

2. 반보기의 내용

“처가와 변소는 멀어야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사돈 간의 교류가 거의 없던 전통사회에서 상호 방문 혹은 왕래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여성의 외출이 금기시되었던 전통사회에서 며느리의 외출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전통사회에서 가사와 농업 노동을 병행했던 며느리들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는 쉽지 않았다. 농번기의 외출은 더더욱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남자들은 다양한 외부 일로 사돈 간의 상호 교류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여자들은 한 번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했을 정도로 평상시 친정과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번기를 벗어나는 추석 무렵이 되면 하루 정도 짬을 내어 외출하는 것이 묵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룻밤 묵는 것은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멀 경우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반보기로 보인다. 약속한 날짜에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그날 돌아오는 당일치기의 만남이었던 것이다.

반보기를 할 때는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회식하고 환담하며 하루를 즐긴다. 사돈 간의 관계가 돈독한 집안에서는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사돈 부인들이 함께 만나는 경우도 많았고, 동년배들이 함께 참석하여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보기는 딸과 친정어머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돈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모녀 간의 상봉과 회포풀기가 사돈 간의 교류, 동년배 간의 교류, 지역 간의 공동체 교류로까지 이어지는 특성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반보기는 그리움의 해소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공동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기능과 특성이 있었다.

반보기는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의 비밀스런 만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사돈 간의 교류를 돈독히 하는 기제로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 연비연사(聯臂聯査) ’, ‘ 사돈관계가 연 걸리듯 한다. ’, ‘ 겹사돈 ’ 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같은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많아 서로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반보기를 할 때면 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단체 유희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즉 좋은 날과 장소를 택하여 서로 음식을 장만하여 각종 놀이를 하면서 야외에서 하루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 것이다. 전남 강진이나 송덕에서 매년 추석 무렵 이웃 마을과 함께 큰 방죽가에서 회식을 하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야유회로 발전된 것이 좋은 예다.

최근에는 사돈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며느리의 친정 나들이가 용인되는 데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 이상 반보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추석이 사흘 간의 연휴로 정착됨에 따라 추석 차례라든가 시댁의 중요한 일을 마치면 친정에 다니러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으면서 며느리의 친정나들이가 반보기를 대신하게 되었다.

또한 일가친척의 동년배나 같은 지역을 친정으로 하는 부인들의 모임으로서 반보기의 기능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른바 같은 지역과 집안을 친정으로 하는 부인들이 만든 ‘ 딸네들 모임 ’ 이 그것이다. 이는 친정과 시댁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년 일회의 모임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모임은 성별(性別)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향우회의 형태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 같은 지역을 친정으로 하는 딸네들 ’ 이라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반보기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자랐거나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혼인으로 인해 타지로 흩어진 동창생들의 모임을 위한 반보기가 있다.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쉽게 만나지 못하게 되자 서로의 중간 지점이나 교통의 요지를 택하여 만나는 반보기 형태도 등장하였는데, 이른바 동년배 모임이 그러한 것들이다. 동년배 모임은 중간 지점이라는 측면도 강하지만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남의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어 동창회의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반보기의 변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모임화 된 반보기는 교통의 발달로 인해 만나는 장소가 굳이 양가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경치

좋은 야외나 유원지로 변화하였고, 심지어는 관광으로 발달하기도 하였다. 시기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반보기는 친구들의 모임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 되었고 공동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3. 반보기

‘ 북어쾌 젓조기로 추석명절 쇠어 보세 / 새 술 오려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 성묘를 하고 나서 이웃끼리 나눠 먹세 / 며느리 말미 받아 친정집 다녀 갈 때 / 개 잡아 삶아내고 떡상자와 술병이라 / 초록 장옷 검남빛 치마 차려 입고 다시 보니 / 여름 동안 지친 얼굴 회복이 되었느냐 /가을 하늘 밝은 달에 마음놓고 놀고 오소 ’

<농가월령가> 8월령 셋째 마지막 연 구절이다. 추석명절을 쇠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오려송편은 일찍 여문 쌀로 빚은 송편을 말한다. 햇곡으로 빚어내는 정성이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다. 그렇게 한 해 농사 잘 지어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해 조상께 올리고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큰 음덕으로 여겨졌던 시절이다. 그리고 농사일이며 고된 시집살이로 한 해 내내 심신이 곤했을 며느리에게 며칠 말미를 주어 개 잡고 떡상자·술병을 손에 들려 친정 나들이를 시켰다. 그리고 빈말일지언정 넉넉한 마음의 배려를 잊지 않았다(박광희, 2017).

“ 가을 하늘 밝은 달 아래 마음 놓고 놀고 오라 ”고 했는데, 이를 근친(覲親)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근친은 추석명절 때 행해지던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풍속의 하나였다. ‘ 출가외인 ’, ‘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 는 유교윤리가 지엄했던 옛 전통사회에서 며느리의 친정나들이를 상서롭게 보지 않았던 터라 겨우 명절이나 친정부모의 생신, 제삿날에만 근친이 허락됐다. 간혹 시집에서 첫 농사를 지은 뒤 근친을 허락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이해 며칠 말미를 주어 친정에 보내는 것을 근친이라 했다.

근친을 갈 때는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빚어 가져갔고, 형편이 넉넉하면 의복이나 버선을 선물로 마련해 가져가기도 했다. 시댁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 왔는데, 이를 ‘ 사돈음식 ’ 이라고 했다.

혹간 시가가 엄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근친을 못갈 때에는 ‘ 반보기 ’ 를 하여 친정부모를 만나게 했다. 이 반보기는 양가에서 미리 연락해 만날 날짜를 정하고, 시댁과 친정의 중간 쯤 경치 좋은 적당한 곳을 택해 친정어머니와 출가한 딸이 만나는 풍속이다. 이때는 각자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먹으며 그동안의 회포도 풀고 하루를 즐기다가 저녁 무렵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야말로 아쉬움 속에 모녀가 헤어지고, 절절하게 저만치 두고 그리움으로 애만 태우며 다음에 만날 날을 기약하던 애잔한 풍속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제도와 가치관, 교통과 통신이 상전벽해로 달라진 지금 근친이며 반보기를 적극 발굴하고 관광상품화 하여 국민여가수요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국내여행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Ⅲ. 반보기의 관광상품화 방안

1. 반보기의 관광콘텐츠화 및 관광스토리텔링화

1) 반보기 노래의 관광콘텐츠화 연구

‘반보기’라는 노래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관광콘텐츠화 하고 관광스토리텔링화 할 필요가 있다.

“하도하도 보고 저워/반보기를 허락받아/
이내 몸이 절반 길을 가고/친정 어메 절반을 오시어/
새중간의 복바위에서/눈물 콧물 다 흘리며/
엄마 엄마 울 엄마야/날 보내고 어이 살았노/”

딸의 하소연에 어머니가 응답한다.

“딸아 딸아 연지 딸아!/
너를 삶아 먹을 것을/너를 끓여 먹을 것을/
그랬더면 니 꼬라지/이리 험악하지는 않지/
밥 못 먹고 살았구나/잠 못 자고 살았구나/
금옥 같던 두 손이사/갈구리가 되었구나/
구실(구슬)같은 두 볼이사/돌짝밭이 되었구나/
금쪽 같은 정내 딸이/부엌 간지(강아지) 다 되었네/
살아야 한데이 살아내야 한데이/
죽드라도 그 대문 안에서/
한 발자욱도 나오지 마라/
그 집 구신 돼야 한데이/
출가외인 내 딸이야”

2. 추석명절을 전후(前後)로 한 반보기의 관광스토리텔링으로 상품화

추석 명절은 일 년 중 가장 풍성한 계절이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날씨도 딱 좋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 는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러한 추석에 벌초와 성묘, 각종 민속놀이와 함께 ' 반보기 ' 라는 세시풍속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으나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풍습이다(전북일보, 2007).

반보기의 원래 명칭은 중로상봉(中路相逢)이다. 추석이 지난 다음 시집간 딸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시집과 친정집 중간쯤에서 친정어머니를 만나는 것이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 추석 특별휴가 ' 인 셈이다. 물론 추석 전에 미리 친정에서 사돈댁에 편지를 띄워 추석이 끝난 뒤 상봉할 날을 잡아 놓는다. 약속된 날이 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마련해 준 음식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친정어머니 마음은 더 바쁘다. 오랜만에 딸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있는 것 없는 것 보따리를 챙긴다. 경관이 좋은 곳에서 만난 어머니와 딸은 손을 붙잡고 눈물부터 쏟는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펼쳐놓고 서로의 안부와 고추보다 매운 시집살이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친정 길을 반만 간다고 반보기, 다른 가족들을 볼 수 없어 반보기, 눈물이 앞을 가려 어머니 얼굴이 반만 보인다 해서 반보기라 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추석에 친정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다. 이에 요즘 여성들을 위한 지역 차원의 관광스토리텔링화 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명절 스트레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절을 맞아 강도 높은 노동량을 감당해야 하는 주부들이 갖는 스트레스를 일컫는다. 명절이 오기 며칠 전부터 주부들은 불안, 초조, 우울, 불면, 위장장애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주부의 87%가 이러한 명절증후군을 겪었다고 한다. 해결책으로 여성단체 등에서는 ' 온 가족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함께 쉬자 ' 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이니 반보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기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여 속 앓이를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결혼이 늦은 싱글들은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성화에 부대낀다. 이러한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반보기 관광스토리텔링화를 통한 상품화는 우리의 명절을 즐겁게 맞이하는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Ⅳ.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속담에 ' 근친(覲親)길이 으뜸이고 화전길이 버금이다 ' 하여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친정 어버이를 뵙는 것이 먼저이고, 꽃구경은 나중이라고 하였으며, 한가위 앞뒤로 반보기가 아닌 ' 온보기 ' 로 하루 동안 친정나들이를 하는 것이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는 큰 바람이었다(김영조, 2018). 요즘은 민족대이동이라 하여

명절에 국민 대다수가 고향을 찾아 일가친척을 만나고, 조상에게 입은 덕을 기리는데 이는 ‘ 반보기 ’ 가 아닌 ‘ 온보기 ’ 일 것이다.

2. 결론

한 번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해서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조선시대, 일 년 중 딱 하루 모녀가 제각기 음식을 가지고 양쪽 집의 중간쯤 되는 곳에 만나 회포를 푸는 애절한 모습을 담은 노래 ‘ 반보기 ’ 와 세시풍속을 활용하여 관광상품화 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로가 절반을 걸어와 만난다 하여 반보기, 다른 가족은 볼 수 없어 반보기, 눈물이 앞을 가려 얼굴의 반밖에 못 본다 하여 반보기라 한 이른바 눈물의 상봉 ‘ 반보기 ’ 라는 풍속으로서 추석을 전후해 이루어졌다.

유교 경전 ‘ 예기(禮記) ’ 에 “ 봄은 새벽달이 좋고, 가을은 저녁달이 좋다(春朝月 秋夕月) ” 란 구절이 나온다. 저녁달이 뜬 가을밤을 의미하는 추석은 일 년 중 입추와 입동 중간에 있는 날로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다 하여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하고 가운데에서도 크다 하여 한가위 그리고 가위를 이두식 한자로 ‘ 가배(嘉俳) ’ 라고도 한다.

가배란 말은 여러 문헌에 나오지만 그 중 고려가요 ‘ 동동 ’ 에도 나온다. 동동은 1년 12달에 맞춰 풍속세시를 그린 노래인데 주로 남녀간의 여러 가지 느낌을 읊었다. 그 중 8월의 내용은 ‘ 8월 보로만 아으/가배나리마란/니믈 뫼셔 녀곤/오날날 가배샷다/아으 동동다리 “ 이다. 오늘 말로 풀이하면 ‘ 8월 보름은 아아, 한가윗날이지마는,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뜻 있는 한가윗날이네. ’ 그리운 님이 더욱 간절해지는 때라는 의미이다.

또한 한가위에는 만남의 기원도 있다. 신라 유리 왕은 도성 안에 있는 여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7월 보름날부터 밤늦게까지 길쌈을 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한 달을 계속한 뒤 8월 보름날인 한가위에 승부를 가려 진 편이 음식과 술을 마련해 이긴 편에 대접하도록 했다. 이 때 진 편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며 탄식하기를 ‘ 會蘇會蘇(회소회소) ’ 라 하였는데,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워 후에 사람들은 이를 노래로 지어 ‘ 회소곡 ’ 이라 했다. ‘ 회소 ’ 는 ‘ 아소(아소서, 知) ’ 혹은 ‘ 모이소(集) ’ 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추석은 남에 대한 배려도 담겨있었다. 주인들은 여름 내내 고생한 농민들과 추석 음식을 장만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었으며 머슴들에게도 새 옷, 추석빔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렇듯 한가위는 님을 그리워하고 만남을 바라는 동시에 남에게 인정을 베푸는 날이다. 흩어졌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서로 담소를 하며 정을 나누는 날이 바로 추석인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번거로움 등으로 ‘ 나 홀로 추석 ’ 을 즐기는 사람도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홀로 지내는 이도 많을 것이다.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서로 외면하고 사는 너와 나에게 ‘ 반보기 ’ 는 서로가 반씩 물러나야 한다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로가 반 걸음 물러나고 상대에게 반 걸음 다가가려는 마음이 바로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는 반보기의 교훈이라는 점 등을 반영하여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번 결혼하면 친정에 가기가 쉽지 않았던 당시, 추석 때만이라도 친정 어머니와 회포를 풀도록 한 시댁의 너그러운 배려가 환하고 둥근 추석 달을 통해 오늘날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추구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실향민이나 북향민(새터민)들은 명절이 와도 온보기는커녕 반보기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세시풍속의 하나였던 반보기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하루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권영호(2007). 경북지역 세시풍속의 계승방안. 영남학, 11, 153 - 193.

김기원 · 이선경(2010). 숲속 활동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전통세시풍속의 발굴과 분류.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3(6), 117 - 131.

김만태(2010). 현대 세시풍속에서 민속놀이의 존재 양상과 향후 전망: 대구 ·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2, 333 - 362.

김명자(2004). 세시풍속의 전승과 현대화 방안 모색. 민속연구, 13, 145 - 166.

김영조(2018). 딸과 어머니의 애틋한 만남 “반보기”. 우리문화신문, 2018.9.25.

박광희(2017). 추석, 근친 그리고 반보기. 농촌여성신문, 2017.9.22.

박석희(2004). 세시풍속의 농촌관광 자원화 가능성과 방법. 농어촌관광연구, 11(1), 74 - 90.

송미경(2017). 칠석 시회(詩會)의 세시풍속적 면모와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 Journal of Korean Culture, 38, 155 - 179.

이광진(1992). 관광대상으로서 한국전통민속축제의 성격규정. 관광연구논총, 4, 135 - 164.

이미경 · 오익근(2014). 단절 위기 민속놀이의 전승 및 관광자원화 방안. 관광연구, 29(1), 119 - 137.

이학주(2015). 혼례놀이 신랑다루기의 전승의의와 관광자원화 방안.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 269 - 282.

임재해(2003). 절반만 가서 반보기, 눈이 적어 반보기. 월간 샘터, 34(9), 82 - 83.

전북일보(2007). [오목대] 추석과 반보기, 2007.9.21.

정명철 · 김미희(2014). 농촌지역 세시풍속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21(2), 39 - 57.

정형호(1996). 서천 남산장의 공간적 기능 변화 고찰: 집단 반보기, 사시(徙市) 공간의 의미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3, 185 - 203.

최화열 · 이혁진(2016). 남산골한옥마을 정월대보름축제의 민속과 문화관광 특징 고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6(4), 73 - 87.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홈페이지, 반보기(http://folkency.nfm.go.kr/kr/topic/detail/3903).

관광학과 대학졸업 청년 취업자의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사회계열 주요학과와의 비교 -

A Study on the Variables that Affect Job Match of College Graduates in Tourism

- A Comparison with Social Science Majors -

안소연* · 임은순**†
Ahn, So-youn · Yim, Eun-soon

ABSTRACT

This study used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7 (2016GOMS)' data. College graduates in tourism showed the lowest level in all three variables; job match, major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knowledge of college major in employment, of the difference analysis between majors. Whereas, tourism major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ducation level match and the skill level match by gender unlike other majors. College major, major satisfaction, reasons for choosing major, whether to set a specific employment goal, an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of major in employment ar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education match. Establishment type, reasons for choosing major, GPA, an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of college major in employment ar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skill match. Those affecting the major match are major satisfaction, GPA and the importance of knowledge of college major in employment. The 'importance of knowledge of college major in employment' is the one variable that influences all of the education match, skill match, and major match.

key words : Job Match, Education Match, Skill Match, 2016GOMS, College Graduates in Tourism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Ahn, So-Youn, Department of Hospitality & Tourism Management, Sejong University. e-mail: syahn0205@naver.com
****† 세종대학교호텔관광대학 교수(교신저자)**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Eun-soon Yim, Department of Hospitality & Tourism Management, Sejong University Tel: 02-3408-3173, e-mail: esyim@sejong.ac.kr

Ⅰ. 서 론

통계청의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9년 5월 취업유경험자 중 대학전공과 불일치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이고,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는 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67%이며,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등 근로여건 불만족(49.7%)도 있었지만, 전공 · 지식 · 기술 · 적성 등이 맞지 않아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6.9%로 전년 동월대비 0.9% 상승하였다고 조사되었다(이투데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문적 흥미나 적성, 직업 및 취업전망이 주된 이유이고,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취업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대학 재학 중 진로 탐색과 스펙 쌓기 등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준비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취업에 성공한 대졸 신입사원이 첫 직장에서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고, 그중에서 전공 · 지식 · 기술 · 적성 등이 맞지 않아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실업난의 원인은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고학력화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괜찮은 일자리’만을 원하는 취업자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임정연이영민, 2013)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수요와 대졸자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박영기, 2016)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받은 교육과 관련 없이 단순히 취업만을 목표로 직장을 갖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김기헌, 2003). 그러나 ‘취업만’을 목표로 할 때 결과적으로 취업 후 직무 불일치 등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취업을 유지하기 힘들다(차성현 외, 2010).

교육과 직업의 불일치는 노동시장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육의 불일치는 생산성 저하와 관련이 있고(Tsang, 1987), 이직가능성이 높으며(Alba - Ramirez ,1993; Sloane et al. , 1999; Topel, 1986; Hersch, 1991) 과잉교육 근로자는 낮은 직무만족도(Tsang and Levin, 1985)로 인해 추가 비용을 초래(Tsang et al., 1991; Battu et al., 2000)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훈련, 채용 및 심사에 대한 투자비용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연구되고 있다.

즉 자신의 전공과 유관한 분야로 취업을 하면 취업의 질이 높아지고(장재윤 외, 2007), 전공과 직업이 일치할수록 정규직에 종사하고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는(김기헌, 2006; 손정선, 2008; Allen and van der Velden, 2001; Wolbers, 2003, Verhaest and Omey 2006)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전공이나 교육수준 또는, 기술수준과 직무의 일치 정도는 조직원의 직무 만족과 취업의 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공과 유관한 분야’, ‘전공과 직무의 일치’는 기존연구에서 ‘직무일치’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임정연 외, 2013; 김진희, 2014; 김기헌, 2003,). 직무일치는 취업자가 자신의 학력(교육)수준,

기술수준에 적합하고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에 취업함으로써 그 일자리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인재가 된다는 것이다(조장식, 2018).

관광 및 호텔 관련 분야에서 직무 일치와 관련된 연구는 과잉교육으로 인한 직무 불일치와 호텔직원의 직무 만족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Kokko & Gurrier와 이은수의 연구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이은수, 2005, 2017; Kokko & Gurrier, 1994).

이에 반하여 경제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개인특성에 관한 연구(김홍균 외, 2009; 유현숙 외, 2005; 최윤미 외, 2013), 학교특성에 관한 연구(유현숙 외, 2005), 기업특성연구(김기헌, 2005; 임찬영, 2008)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문 · 사회 · 의학 · 교육 등 전체 계열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공 계열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교육계열이나 의약계열 등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학과 졸업생들의 전공 일치율이 높다는 경험적 사실을 확인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유현숙 외, 2005), 나아가 구체적인 학과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학과를 졸업한 청년 취업자의 전공, 교육, 기술일치 수준을 살펴보고 비교적 관광학과와 성격이 동일한 사회계열 주요 학과 졸업생들과 비교 · 분석하며,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대학교육의 운영 방향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일치의 개념

직무는 각 직위(position)에 배당된 업무[일]을 말한다(이종수, 2009).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연구는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과의 일치/불일치로 구분할 수 있다(손정선, 2008). 이러한 직무일치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직업일치, 전공일치, 전공일치 취업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직무 일치라는 개념은 용어 정의에서부터 관련 변수 연구까지 학자들마다 상이하다(구성우 외, 2015).

세부적으로 교육일치는 개인이 받은 교육의 정도가 특정 직업의 일에 필요한 수준과 적합한 것을 의미하며, 기술일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특정직업의 일에 필요한 수준과 적합한 것을 뜻한다. 전공일치는 개인의 대학전공과 특정 직업의 일과 연관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구성우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임정연 외(2013), 김진희(2014), 김기헌(2005, 2006), 주무현(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종속변수인 직무일치를 자신의 역량이 직장에서의 업무와 일치하는 정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교육수준일치, 기술수준 일치 및 전공수준 일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2. 직무일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수는 개인의 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와 개인과 관계된 사회경제적 변수, 대학생활 변수로 구분된다. 개인의 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전공 등이 있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부모 학력, 부모직업, 가계소득 등이 있다. 그리고 평점, 진로나 취업관련 교과목 참여유무, 어학연수 경험, 자격증개수 등 대학생활 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구성우, 2015).

개인의 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 중 성별과 연령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있어 기본적인 개인수준 변수로 포함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은수(2017)는 호텔종사자 대상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직무-교육 불일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고, 백수경(2014)의 연구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연구개발업, 공공행정업, 전문직 등의 남성지배적인 직업군과 일부 혼성 산업군에서 여성이 직무-교육 불일치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헌(2005)의 연구에서는 전공분야가 남성지배적인가 여성지배적인가에 따라 성별에 따른 직무불일치의 가능성이 높고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분리에 따른 직무-교육 불일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의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대학원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일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정선, 2008; 유현숙 외, 2005).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공분야가 보다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와 연계되는 일자리의 범위는 좁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여지는 높아지는(김기헌, 2005)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지므로 학력의 동질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일반대학교(4년제)에 한정하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인 부모학력, 직업, 가계소득 등의 변수는 직무일치와 관련한 연구보다는 임금 및 취업소요기간 등의 취업성과에서 많이 다루어 졌는데(안소연 외, 2018), 직무일치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이 직무일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김기헌, 2005; 최윤미 외, 2013) 제외하였다.

개인수준 변수와 관련해서 전공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학과 계열에 따라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 인문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일치를 나타냈으며, 반면 의·약대, 교육, 공학계열은 높은 전공일치를 나타냈다(손정선, 2008; 유현숙 외, 2005; 최윤미, 2013). 전공의 특성과 졸업 후 진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의·약대 계열, 교육학과 계열의 졸업생들은 거의 전공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회적 구조를 감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광학과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계열의 주요학과를 기준으로 전공을 한정하였다.

대학변수로는 설립유형, 학교유형, 소재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현숙 외(2005)는 대학배경 변수를 학교규모, 소재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직무일치가 높고, 일반대학교가 전문대학보다 직무일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학교유형은 대학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부터 가족배경, 학교특성, 노동시장의 특성 등 많은 변인들을 분류하고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대학 변수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취업을 고려하여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취업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대학 재학 중 진로탐색과 스펙 쌓기 등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준비 및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노경란 외, 2011; 신혜숙 외, 2013) 취업에 있어 대학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변수 및 개인심리, 개인대학생활 변수를 함께 포함하였다.

[표 1] 직무 일치와 관련된 선행연구

연구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료출처
김기헌 (2005)	(첫일자리, 현재일자리) 직무불일치	개인특성(성별, 연령, 지역), 가족배경(부교육, 부직업), 학교특성(학교 유형, 전공분야), 노동시장(첫 일자리와 현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현일자리 근무연수, 현일자리 기업규모)	노동패널(한국), 일반사회조사(일본)
손정선 (2008)	전공일치도 업무만족도	전공분야(인문, 사회, 자연, 공학), 성별, 연령, 교육수준(전문대, 대학, 대학원), 고용안정성(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 · 일용직)	한국노동패널
노일경 임언 (2009)	직무불일치	가정배경특성(월평균가구소득, 부의학력), 재학중 교육경험 특성(출신고유형, 성적, 재학 중 총근로시간, 대학전공계열, 취업경로), 직장특성(직장규모, 근무형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구성우 (2015)	직무일치	개인배경(성별, 연령, 전공), 대학변인(설립유형, 학교유형, 소재지), 개인심리(전공만족도, 취업에 전공지식중요도, 전공선택이유, 취업목표설정) 개인대학생활(학점, 인턴제참여, 자격증과 전공의연관성)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이은수 (2017)	직무 - 교육불일치	개인특성(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무특성(현 직장 근속기간, 직급, 전직경험, 총 업계 종사기간, 근무부서)	서울지역 호텔종사원 대상 설문조사
조장식 (2018)	직무일치	개인특성(성별, 나이, 부모학력, 가계소득) 학교특성(학교유형, 설립유형, 전공, 학점, 자격증갯수, 전공만족도, 학교만족도), 기업특성(직장규모, 근무형태, 고용형태, 임금)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최문석 송일호 (2019)	직장만족도 임금	개인특성(성별, 최종학력) 노동시장(기업규모, 산업형태, 고용형태, 노조유무, 근속연수, 교육일치도, 전공일치도)	청년패널
Kokko Guerrier (1994)	Job Descriptive Index	나이, 성별, 결혼유무, 교육수준, 직업교육정도, 직장경험, 현 직장 근무년수	핀란드 수도 1등급 호텔 예약담당자
John Robst(2007)	교육과 직업일치	연령, 성별, 인종, 장애여부, 결혼여부, 전공분야, 풀타임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교육정도, 임금	대학졸업생전국조사

Ⅲ. 연구 설계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가. 분석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16GOMS) 자료이다.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는 매해 전년도 2 - 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약 4%에 해당하는 18,000명의 패널을 구축하여 졸업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정된 각 층화단위별 표본은 확률비례에 의한 계통추출로 추출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는 졸업 후 현재 일자리의 직무일치 정도, 대학 생활, 개인배경, 전공선택이유, 개인 대학생활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에 사용하였다.

나. 연구대상

대졸자직업이동 경로 조사는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의 학과 분류 자료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관광관련학과에 대한 분류 체계가 명확하지 못해 중분류 및 대분류가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표2]).

[표 2] 교육개발원 분류에 따른 사회과학계열 관광 관련학과

학교유형	학과소분류	학과명
4년제	교육개발원 분류의 관광학	관광학과, 국제관광경영학과, 국제관광학과, 항공비서학과, 항공관광학과, 국제관광호텔학과, 관광상품개발학과, 스튜어디스학과, 도시 · 관광계획학과, 문화관광학과, 역사관광학과, 국제레저컨벤션학과 등
	교육개발원 분류의 경영학	관광경영학과, 관광호텔경영학과, 레저관광경영과, 컨벤션산업학과,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외식경영전공, 호텔경영학전공, 컨벤션관광경영전공, 호텔항공관광학과, 외식경영학과, 관광컨벤션학부, 관광경영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등

1) 2015 GOMS code book 및 2016 학과(전공)분류 자료집을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2) 기존의 관광관련학과는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의 소분류 관광학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광관련 키워드 분석을 통해 관광관련학과를 재분류함.
3) 2010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2011) 에 의하면 관광학과는 총 229 학교에서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관광동향의 연차 보고서(2016)에 의하면,113개 학교에서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광학과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조사에서 교육기관의 수가 116개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안소연 외, 2017).
자료: GOMS 2015대졸자 취업정보(한국고용정보원, 2016) 관광산업 인력수급실태분석(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안소연 · 오영주 · 임은순(2017)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관광 관련학과 재분류 전 · 후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관광전공 졸업생들의 고용률 통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관광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조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광관련학과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에 앞서 4년제 대학 ‘ 경영학과 ’ 로 포함되어있는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부, 컨벤션 관광경영전공, 항공서비스경영학과, 관광이벤트 경영학과 등 42개 학과를 각 학과코드별 개별 분류하여 관광관련학과로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우선 4년제 사회과학계열 전공자 3,746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 세분류를 기준으로 ‘ 호텔 ’, ‘ 관광 ’, ‘ 카지노 ’, ‘ 컨벤션 ’, ‘ 레저 ’, ‘ 외식 ’, ‘ 항공 ’ 으로 추출하여 관광 관련학과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관광 관련학과 재분류 과정에서 ‘ 보안카지노경영과 ’, ‘ 관광도시계획학과 ’ 는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과정을 확인 후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사회과학 계열 중 표본수가 적거나 다른 전공보다 취업에 있어서 전공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법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하고, 관광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의 4개 학과를 선정하였다. 최종

적으로 결측치를 제외한 연구대상은 821명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특성

명(%)

구분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관광학과	총계
총계		358(43.6)	201(24.5)	164(20.0)	98(11.9)	821(100)
성별	남자	228(63.7)	135(67.2)	96(58.5)	38(38.8)	497(39.5)
	여자	130(36.3)	66(32.8)	68(41.5)	60(61.2)	324(60.5)
설립유형	국공립	64(17.9)	55(27.4)	35(21.3)	5(5.1)	159(19.4)
	사립	294(82.1)	146(72.6)	129(78.7)	93(94.9)	662(80.6)
소재지	수도권	194(54.2)	116(57.7)	82(50)	33(33.7)	425(51.8)
	비수도권	164(45.8)	85(42.3)	82(50)	65(66.3)	396(48.2)

2. 연구가설 및 분석 방법

가.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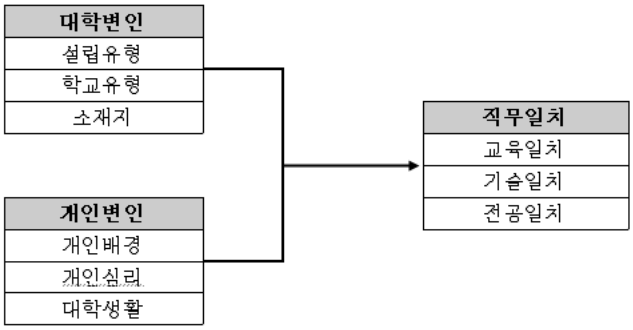
H1 직무일치와 이에 관련된 요인들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H2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졸 청년 취업자의 요인은 무엇인가?

H2-1 교육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졸 청년 취업자의 요인은 무엇인가?

H2-2 기술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졸 청년 취업자의 요인은 무엇인가?

H2-3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졸 청년 취업자의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1] 연구모형

나.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무일치 하위집단에 대한 변수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차이 검정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육일치와 기술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변수 선정 및 구성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직무일치이다. 대졸자직업이동 경로 조사에서 직무일치와 관련된 문항은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일치의 3문항으로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수준일치 문항은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이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1. 일의 수준이 매우 낮다, 2.일의 수준이 낮다, 3. 일의 수준이 알맞다, 4. 일의 수준이 높다, 5. 일의 수준이 매우 높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졸 청년취업자가 교육수준과 일의 수준이 알맞다고 느끼면 일과 교육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직 등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또 현재의 직무보다 자신의 교육수준이 낮다고 느끼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재교육 등으로 교육수준을 높이면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업무수행과정에 과잉교육과 과잉기술이라고 느끼게 되면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을 하거나 직장만족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의 수준이 알맞음’을 교육수준 일치로, ‘직무(일)의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음’을 교육 불일치(과잉교육)으로 설정하였다.

기술 수준일치의 경우에도 교육수준 일치의 경우 같이 기술일치, 과잉 기술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수준일치와 기술수준 일치는 이분형(일치, 과잉)이 되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마지막 종속변수인 전공과 직무의 일치 문항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문항부터 ‘매우 잘맞는다’ 문항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대학변수와 개인변수로 나누었다. 대학변수는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 사립으로 구분하였고, 소재지는 권역으로 구분하여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 그 이외 지역은 비 수도권으로 나누었다.

개인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배경요인, 개인 심리요인, 개인 대학생활변수요인의 3가지로 나누고, 성별, 연령, 전공을 개인배경요인, 전공만족도와 전공선택이유, 취업목표설정을 개인심리요인, 평점과 인턴제참여,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를 개인 대학생활변수로 선정하였다.

개인배경요인 중 전공은 직무일치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연구자에 따라 4개에서 최대 17개의 전공으로 세분화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학과와 관광학과가 속하는 사회계열 내에서 주요학과(관광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인심리변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개인심리변수들이 노동성과와 직무일치, 직장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전공만족도, 전공선택이유, 취업목표설정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대학생활의 학업 수준 및 학교생활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평점과 전공분야 및 취업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을 알 수 있는 인턴제 참여여부도 개인대학생활 변수로 포함하였다.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는 청년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공지식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고 더불어 전공과의 관련성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포함하였다.

[표 4] 변수 설명 및 투입방법

구분			변수설명	변수투입방법
종속변수	직무일치	교육 직무일치	교육수준과의 일치 정도	교육수준일치(1), 교육수준불일치(0)
		기술 직무일치	기술수준과의 일치 정도	기술수준일치(1), 기술수준불일치(0)
		전공 직무일치	직장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독립변수	대학변수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으로 구분	국공립=1, 사립=0
		소재지	권역구분 시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 그 이외는 비수도권	수도권=1, 비수도권=0
	개인배경	성별	성별	남자=1, 여자=0
		연령	연령	연속변수
		전공	관광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관광학=1, 다른학과=0
	개인심리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전공선택이유	주전공을 선택한 이유(취업, 성적, 적성, 주변권유, 인식명성)	취업=1, 다른이유=0
		취업목표설정	졸업 전 취업목표 설정유무	그렇다=1, 아니다=0
	개인대학생활	평점	졸업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점수화	연속변수
		인턴제참여	인턴제 참여 여부	예=1, 아니오=0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	업무수행에 있어 전공지식의 중요도 정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Ⅳ. 분석결과

1. 직무일치 집단 간 차이분석

직무일치를 보면 교육일치와 기술일치는 관광학과를 비롯한 4개 학과 졸업자의 평균이 모두 2점대로 낮고, 전공일치만 3.07로 3점대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5]).

교육수준일치는 10% 유의수준에서 관광학과가 2.74로 가장 낮고, 경제학과가 2.94로 가장 높다. 기술일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데, 관광학 졸업자가 가장 낮은 2.76, 경영학 졸업자가 2.96으로 가장 높다. 전공일치는 1% 유의수준에서 관광학과 졸업생은 2.81로 가장 낮고 경영학과 졸업생은 3.27로 가장 높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학과를 졸업한 청년 취업자들은 다른 학과를 졸업한 청년 취업자보다 직무일치 구성요소인 교육, 기술, 전공일치가 모두 낮아 현재 근무하는 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고, 기술수준보다 낮으며, 전공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직무일치 하위요소 집단 간 차이분석

구분		관광학(a)	경영학(b)	경제학(c)	행정학(d)	전체	F	p
교육일치	N	97	355	200	163	815	2.477* b>a	.060
	평균	2.74	2.94	2.82	2.85	2.87		
	표준편차	0.650	0.771	0.730	0.653	.727		
기술일치	N	97	355	200	163	815	3.295** b>a	.020
	평균	2.76	2.96	2.84	2.81	2.87		
	표준편차	0.658	0.698	0.728	0.624	.690		
전공일치	N	97	355	200	163	815	6.555*** b>a,c,d	.000
	평균	2.81	3.27	2.96	2.9	3.07		
	표준편차	1.193	1.115	1.194	1.311	1.197		

*p<.1, **p<.05, ***p<.01

2. 주요 변수의 집단 간 차이분석

전공만족도는 경제학과 졸업생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고, 행정학과 졸업생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낮다([표 6]).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는 경영학과 졸업생이 가장 높고, 관광, 경제, 행정학과 졸업생들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학과 졸업자의 전공 및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는 모두 평균보다 낮다.

[표 6> 전공만족도 및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 집단 간 차이분석

구분		관광학(a)	경영학(b)	경제학(c)	행정학(d)	전체	F	p
전공 만족도	N	98	358	201	164	821	3.915*** c>d	.009
	평균	3.33	3.49	3.57	3.29	3.45		
	표준편차	.770	.872	.835	.933	.869		
업무수행전 공지식중요 도	N	97	355	200	163	815	7.755*** b>a,c,d	.000
	평균	2.80	3.25	2.99	2.83	3.05		
	표준편차	1.057	1.053	1.158	1.195	1.123		

*p<.1, **p<.05, ***p<.01

대학배경 및 개인배경의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교육일치는 성별, 기술일치는 성별과 소재지, 전공일치는 설립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7]).

구체적으로 교육수준 일치는 관광과 졸업 취업자의 성별에 따른 교육일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전공자의 경우 차이가 유의하다. 이는 이은수(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관광학과의 경우에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남성 · 여성간에 차이가 없지만, 경제경영행정학과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수준 일치는 관광학과 경제학 전공자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경영학, 행정학 전공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기술수준 일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학의 경우 직업군의 특성상

교육수준이나 기술수준에서 남 · 녀의 차별이 적고 균등한 업무의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소재지에 따른 기술수준 일치정도는 관광학과 경영학전공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관광학전공자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이 비수도권보다 기술수준 일치정도가 높고, 경영학전공자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이 수도권보다 기술수준 일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일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행정학전공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졸업자에서 전공일치도가 높다.

[표 7] 대학배경 및 개인배경 변수의 집단 간 차이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교육 일치	성별	관광학	남자	38	2.82	.730	-.893	.374
			여자	59	2.69	.595		
		경영학	남자	226	3.05	.779	-3.638	.000***
			여자	129	2.74	.721		
		경제학	남자	135	2.90	.736	-2.293	.023**
			여자	65	2.65	.694		
		행정학	남자	95	2.96	.634	-2.616	.010**
			여자	68	2.69	.652		
기술 일치	성별	관광학	남자	38	2.84	.718	-.951	.344
			여자	59	2.71	.617		
		경영학	남자	226	3.06	.719	-3.627	.000***
			여자	129	2.78	.625		
		경제학	남자	135	2.87	.741	-.886	.377
			여자	65	2.77	.702		
		행정학	남자	95	2.91	.566	-2.270	.025**
			여자	68	2.68	.679		
	소재지	관광학	수도권	32	2.97	.538	-2.400	.019**
			비수도권	65	2.66	.691		
		경영학	수도권	192	2.88	.710	2.286	.023**
			비수도권	163	3.05	.674		
		경제학	수도권	116	2.84	.659	-.027	.978
			비수도권	84	2.83	.819		
		행정학	수도권	81	2.85	.594	-.854	.394
			비수도권	82	2.77	.654		
전공 일치	설립 유형	관광학	사립	92	2.83	1.201	.411	.682
			국공립	5	2.60	1.140		
		경영학	사립	292	3.25	1.123	-.743	.458
			국공립	63	3.37	1.082		
		경제학	사립	145	2.91	1.196	-.955	.341
			국공립	55	3.09	1.191		
		행정학	사립	128	2.80	1.336	-1.972	.050*
			국공립	35	3.29	1.152		

*p<.1, **p<.05, ***p<.01

대학에 해당 전공을 선택한 주된 이유를 교차 분석한 결과 관광학 졸업자의 경우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했다고 답한 비율이 56.1%로 가장 높고, ‘성적에 맞춰서’ 20.4%, ‘직업 및 취업전망이 밝아서’ 14.3% 의 순이다. 관광학과 경제학 졸업자와 달리 경영학 전공자는 ‘직업 및 취업전망’에 따라 선택하였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행정학 전공자는 ‘성적에 맞춰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표 8]).

[표 8] 전공선택 주된이유 교차분석

구분	관광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계
직업 및 취업전망	14(14.3)	125(34.9)	63(31.3)	41(25.0)	243(29.6)
성적에 맞춰서	20(20.4)	74(20.7)	36(17.9)	49(29.9)	179(21.8)
학문적흥미 및 적성	55(56.1)	121(33.8)	86(42.8)	45(27.4)	307(37.4)
부모님, 선생님권유로	6(6.1)	21(5.9)	13(6.5)	22(13.4)	62(7.6)
친구나 선배 권유로	1(1.0)	2(0.6)	0(0.0)	2(1.2)	5(0.6)
사회적인식명성	2(2.0)	13(3.6)	2(1.0)	3(1.8)	20(2.4)
기타	0(0.0)	2(0.6)	1(0.5)	2(1.2)	5(0.6)
계	98(100)	358(100)	201(100)	164(100)	821(100)

χ^2 =53.186, p=.000***, *p<.1, **p<.05, ***p<.01

관광학전공자의 경우 대학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답한 비율이 59.2%로 행정학전공자(63.4%) 다음으로 높다. 경영학과 경제학 전공자의 경우 취업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수준에서 유의하다([표9]).

[표 9] 취업목표 설정여부 교차분석

구분		관광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계	χ^2	p
취업 목표 설정	예	58(59.2)	173(48.3)	94(46.8)	104(63.4)	429(52.3)	14.716	.002***
	아니오	40(40.8)	185(51.7)	107(53.2)	60(36.6)	392(47.7)		
	계	98	358	201	164	821(100.0)		

*p<.1, **p<.05, ***p<.01

3.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교육일치

교육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배경에서는 전공, 개인심리에서는 전공만족도, 전공선택이유, 취업목표 설정여부와 개인대학생활 변수에서는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표 10]).

전공별로는 관광학과 졸업생이 경영학과 졸업생보다 교육수준이 일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과 특성상 관광학과 4년제 졸업생의 취업 분야가 이미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지원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심리 요인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일치하고, 전공 선택에 있어서 ‘ 사회적 인식명성 ’ 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 직업 및 취업전망 ’ 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보다 교육수준 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 전 취업목표를 설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교육수준 일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에 대한 비중을 높여 준비한 것이 오히려 교육수준보다 낮은 직장으로 취업하는 하향취업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 일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는 1%에서 유의하다.

[표 10] 교육일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표준오차	Wals	p	Exp(B)
대학 변수	설립유형(국공립)		.300	.206	2.119	.145	1.350
	소재지(수도권)		.208	.159	1.712	.191	1.231
개인 배경	성별(남성)		-.033	.164	.040	.842	.968
	연령		-.008	.022	.143	.705	.992
	전공(관광)	경영	-.574	.260	4.878	.027**	.563
		경제	-.417	.280	2.223	.136	.659
		행정	-.069	.289	.057	.811	.933
개인 심리	전공만족도		.188	.094	4.019	.045**	1.207
	전공선택이유 (취업)	성적	.307	.220	1.942	.163	1.359
		적성	-.273	.184	2.197	.138	.761
		주변권유	.313	.304	1.058	.304	1.368
		인식명성	1.379	.574	5.771	.016**	3.971
	취업목표설정		-.275	.157	3.078	.079*	.760
개인 대학 생활	평점		.010	.009	1.124	.289	1.010
	인턴제참여(경험있음)		.013	.436	.001	.976	1.013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		.344	.073	22.454	.000***	1.410

-2log 우도 = 1029.842 Nagelkerke R^2=.094, *p<.1, **p<.05, ***p<.01

나. 기술일치

기술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설립유형, 전공선택이유, 평점과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표 11]).

대학설립 유형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10%에서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졸업자가 기술수준이 일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심리 변인에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보다 기술수준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 평점이 높을수록,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높을수록 기술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기술일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표준오차	Wals	p	Exp(B)
대학 변수	설립유형(국공립)		.358	.212	2.863	.091*	1.431
	소재지(수도권)		.086	.160	.288	.591	1.090
개인 배경	성별(남성)		.096	.166	.336	.562	1.101
	연령		-.009	.023	.145	.704	.991
	전공(관광)	경영	-.369	.261	2.000	.157	.691
		경제	-.329	.281	1.367	.242	.720
		행정	.038	.291	.017	.895	1.039
개인 심리	전공만족도		.114	.095	1.462	.227	1.121
	전공선택이유(취업)	성적	.250	.221	1.276	.259	1.284
		적성	-.071	.187	.143	.705	.932
		주변권유	.060	.302	.039	.843	1.062
		인식명성	1.694	.644	6.915	.009***	5.440
	취업목표설정		-.204	.159	1.650	.199	.816
개인 대학 생활	평점		.025	.009	7.401	.007***	1.025
	인턴제참여(경험있음)		-.126	.439	.083	.774	.881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		.374	.073	26.042	.000***	1.454

-2log 우도 = 1009.476, Nagelkerke R^2=.103, *p<.1, **p<.05, ***p<.01

다. 전공일치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개인심리변인에 있어서 전공만족도와 평점과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조정된 R^2에 의하면 44.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10% 유의수준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유의수준에서 평점이 높을수록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전공 분야와 일치하는 직업군을 갖게 되고,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12] 전공일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계수		B	t	p
			B	표준오차			
대학 변인	설립유형(국공립)		.016	.085	.005	.191	.849
	소재지(수도권)		.084	.067	.035	1.256	.209
개인 배경	성별(남성)		.000	.069	.000	-.006	.995
	연령		-.005	.009	-.015	-.535	.593
	전공(관광)	경영	.155	.108	.064	1.433	.152
		경제	.001	.117	.001	.012	.990
		행정	.070	.119	.023	.583	.560
개인 심리	전공만족도		.069	.040	.050	1.752	.080*
	전공선택이유(취업)	성적	-.094	.091	-.032	-1.033	.302
		적성	-.009	.079	-.004	-.112	.911

		주변권유	.131	.127	.030	1.030	.303
		인식명성	-.064	.189	-.009	-.339	.735
	취업목표설정		.050	.066	.021	.759	.448
개인 대학 생활	평점		.011	.004	.080	2.956	.003***
	인턴제참여(경험있음)		.116	.185	.017	.625	.532
	업무수행전공지식중요도		.664	.030	.622	21.971	.000***

R=.673, R^2=.453, 조정된 R^2=..442, F=41.285, P-value=.000, *p<.1, **p<.05, ***p<.01

V. 결 론

본 연구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관광학과와 경영 · 경제 · 행정학과를 졸업한 청년 취업자의 전공, 교육, 기술일치 수준을 비교 · 분석하고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직무일치, 전공만족도,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모두 관광학 졸업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해서’ 관광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 재학 중에 취업목표를 설정한 관광학과 졸업 청년 취업자들은 다른 전공자들보다 전공 만족도,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가 낮으며, 현재 근무하는 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기술수준보다 낮으며, 전공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타 과와 달리 관광학 전공자의 경우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일치와 기술수준일치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학전공자의 직업군에서 성별에 따른 직무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남녀가 평등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전공, 전공만족도, 전공선택이유, 취업목표 설정여부와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학과 졸업생이 경영학과 졸업생보다, ‘사회적 인식명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일치할 정도가 높다. 또한 전공 만족도와 업무수행 전공지식 중요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 일치할 확률이 높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고 업무수행시 전공지식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집단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일치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졸업 전 취업목표를 설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교육수준 일치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재학 시에 취업을 고려하여 준비한 집단이 오히려 교육수준보다 낮은 직장으로 취업하게 되는 하향취업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술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설립유형, 전공선택이유, 평점과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유의하다.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 졸업자가, 사회적 인식이나 명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이 직업 및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보다 기술수준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다. 평점과 업무수행 전공지

식중요도가 높을수록 기술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전공만족도와 평점,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전공만족도와 평점이 높을수록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전공 분야와 일치하는 직업군을 갖게 되고,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가 높을수록 전공과 일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일치와 기술일치, 전공일치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수행 전공 지식중요도’이다. 업무수행 전공지식중요도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이것이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학의 교과과정이 실무적 부분과 조화롭게 짜여지고, 학생들이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닌 취업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습하면 전공과 기술과 교육수준의 일치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전문대와 4년제 관광학과 졸업생에 대한 비교 ·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소재지에 따른 기술수준 일치정도에서 관광학전공자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집단이 비수도권보다 기술수준 일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심층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연보

구성우 · 김병주(2015). 직무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특성 변인.『교육재정경제연구』, 24(3); 187 - 210.

김기헌(2003). 하향취업 실태 및 과잉교육 노동자의 특성.『KLIPS Research Brief』, 2003(3): 1 - 12.

_____(2005). 교육과 직무의 불일치 - 한일 대학졸업자들을 중심으로 - 『교육사회학연구』. 15(3); 92 - 103.

_____(2006). 업무내용과 대학원(전공)의 불일치, 『노동리뷰』 1: 92 - 103.

김진희(2014). 전공과 희망직업 불일치 대학생의 진로스토리에 나타난 진로결정 경험.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26(4), 993 - 1021

김홍균·김지혜(2009). 대학 전공 불일치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한국응용경제학회』, 11(1), 49 - 73.

노경란 · 박용호 · 허선주(2011).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대졸 청년의 능력개발 노력과 주관적 취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2): 55 - 81.

노일경, 임언(2009). 직무불일치의 원인 및 임금과의 관계, 불일치에 대한 대응 양상: 전문대졸 여성 신규 취업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8(2): 1 - 18

박영기(2016).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이 진로결정과 취업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관련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 . 『호텔리조트연구』, 15(4): 593 - 610

백수경(2014). 청년층 직무 불일치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 분석 - 직업과 산업의 성별 분리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손정선(2008). 전공과 직업 일치에 따른 직무만족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혜숙 · 민병철 · 남수경(2013).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211 - 235.

안소연 · 오영주 · 임은순(2017). 관광학과 대학졸업자의 전공만족, 진로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3(3): 203 - 219

안소연 · 임은순(2018). 4년제 관광전공졸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20(4): 15 - 27

유현숙·조영하(2005).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 전공일치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2(4), 223 - 244.

이만기(2010). 대졸자의 일자리적합과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대한경영정보학회』, 29(4); 245 - 266.

이은수(2005). 호텔산업의 과잉교육, 불완전취업과 직무만족. 『관광학연구』, 29(2): 465 - 486.

_____(2017). 호텔산업의 직무 - 교육 불일치는 해소되는가? - 직무이동이론과 직무경쟁이론의 적용 - . 『관광학연구』, 41(10): 87 - 103

이종수(2009). 『행정학 사전』, 대영문화사

임정연·이영민(2013). 중소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발적 이직의도, 교육 - 직무일치도, 일자리특성의 관계에서 근무환경, 인간관계, 자기개발 가능성의 조절효과:기업교육에 대한 시사점. 『기업교육연구』, 15(2): 155 - 181.

임찬영(2008). 전공불일치 결정요인과 전공불일치가 근속과 임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8(1), 95 - 123.

장재윤 · 신희천 · 이지영(2007). 대학에서 ‘ 전공 ’ 에 몰입하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가? 대학생들의 전공몰입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4): 415 - 435.

조우철·박재연(2018). 바리스타의 직무불일치 수준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가맹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 .『호텔리조트연구』, 17(3), 403 - 414

조장식(2018). 헤크만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직무일치 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9(5), 1169 - 1177

주무현(2007). 전공·직무 일치하지 않는 청년층 45% 달해. 한국고용정보원, 2007년 10월 보도자료.

차성현·주휘정(2010). 교육 및 기술 불일치가 임금, 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177 - 215.

최문석, 송일호 (2019). 청년층의 교육 및 전공불일치가 임금과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2): 85 - 102

최윤미·김영식·길혜지·주현준(2013). 전문대학 입학사정관제가 졸업자의 일과 전공 일치도 및업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고용패널』, 32(6), 111 - 132.

통계청(2019).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한국고용정보원(2016). 2015 대졸자 취업정보.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학과(전공)분류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Alba - Ramı´rez, A. (1993). Mismatch in the Spanish labor market. Journal of Human Resources 28(2): 259–278.

Allen, J., and R. van der Velden.(2001). Educational mismatched versus skill mismatches: Effects on wages, job satisfaction, and on-the-job search. Oxford Economic 3: 434-452.

Battu, H. and Sloane, P. J. (2000). Overeducation and crowding out in Britain. In Borghans and de Grip (eds), The Overeducated Worker (pp. 157-175).

Hersch, J. (1991). 'Education Match and Job Matc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 140-4.

Kokko, J., & Gurrier, Y.(1994). Overeducation, under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A study of Finnish hotel reception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13(4): 375-386.

Robst, J.(2007). Education and job match: The relatedness of college major and work.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6: 397-407

Sattinger, M.(1993). Assignment Models of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2), 851-880.

Sloane, P., Battu, H. and Seaman, P. (1999). Overeducation, undereducation and the British Labour market. Applied Economics 31: 1437-1453.

Topel, R. (1986). 'Job Mobility, Search and Earnings Growth', Research in Labor Economics, 8, 199-233.

Tsang, M. (1987). The impact of underutilisation of education of productivity: a case study of the U.S. Bell compani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1: 239-234

Tsang, M. and Levin, H. (1985). 'The Economics of Over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4, 93-104.

Tsang, M., Rumberger, R. and Levin, H. (1991). The impact of surplus schooling on worker productivity. Industrial Relations 30(2): 209-228.

Verhaest, D., & Omey, E. (2006). The impact of overeducation and its measur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77(3), 419-448.

Wolbers, M.H.J.(2003). Job Mismatches and their Labour-Market Effects among School-Leaver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3): 249-266.

아주경제 2019.7.17. 「청년 절반 이상, 대학 전공 관련 없는 일자리 택해 ...첫 취업에는 10.8개월」 https://www.ajunews.com/view/20190717093210637.

이투데이 2019.7.16. 「짧아지는 ‘첫 직장 근속기간’...근로조건불만·전공불일치탓」, http://www.etoday.co.kr/news/view/1777227.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관광정책의제 도출

- 흰여울문화마을을 중심으로 -

Busan tourism policy agenda proposals using social big data

- Focused on Huinnyeoul Culture Village -

이새미* · 유승의**
Lee, Sae-mi · Ryu, Seung-eui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ourism-related data among social big data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ourists , and through this, derives policy agenda for the utilization of social big data in tourism for revitalization of tourism industry. To this end, 1162 online tourist review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LDA topic modeling technique and extracted into 7 topics in total. As a result, Topic 7 was the most important, and the review which showed the emotional image of tourists was the main one. In addition, one of the seven topics is a topic that shows the negative emotions of touris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oundation for deriving evidence-based tourism policy was prepared by using a more objective and automated unstructured big data analysis method. Seco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ourism policy in Busan by deriving tourism policy agenda as a public agenda by understanding tourists' perception. Third, it is expected to be an opportunity to derive the agenda of tourism policy through the use of social big data analysis.

key words : tourism policy agenda, Huinnyeoul Culture Village, text mining

* **동아대학교 스마트거버넌스연구센터 전임연구원**, emailme6@naver.com, 관심분야: 빅데이터, 호텔외식경영
** **동아대학교 스마트거번스연구센터 전임연구원,** juim0928@gmail.com, 관심분야: 빅데이터, 관광정책 (교신저자)

Ⅰ. 서 론

세계 각국은 국가 간 관광경쟁이 심화되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과 수익 창출 그리고 지역 또는 나라간의 교류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와 소위 ‘21세기의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인식되고 있다(오병진, 2011).

최근 관광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광정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정부, 민간이 협력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하다.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민간과 중앙 정부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와 증진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관광단지 발굴,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관광산업의 발굴과 시설 확충을 하기에 앞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니즈(needs)나 의견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대안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 ·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광아이디어 도출 및 정책의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이다. 관광정책 아이디어 도출에 있어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다양성과 소셜 미디어 이용하는 관광객, 시민들의 오역되지 않은 자발적인 목소리를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또는 잠재적인 관광객들의 인식과 요구사항 그리고 관심사 등을 파악하므로 주요 이슈를 도출, 개선안, 새로운 정책 또는 아이디어를 도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활성화에 따라 관광산업 부문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소셜 미디어 분석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와 활용에 있어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인식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의제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글 맵을 통해 부산의 흰여울 문화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의 댓글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동향과 니즈를 분석하여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출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관광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주요 현안의 도출을 위해 비정형데이터인 댓글을 계량화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셋째,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셜 미디어와 빅데이터

SNS의 확산,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 그리고 정보의 탐색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켰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학계 및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Big - data)의 관심과 중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으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10대 정보기술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선정하는 등 세계는 빅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다(오익근 외, 2017).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일자리를 창출 창출시키고 추세분석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과 트랜드 파악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지하철 이용시간대별 출구분석을 통한 식당 개업장소 제안 사례나 이동통신사의 통화정보를 분석하여 심야버스 시간 조절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고 실행한 예가 있다(머니투데이, 2013.09.25).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관광분야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관광학계나 업계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대회나 세미나 등을 실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관광객의 니즈를 반영한 관광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폴리뉴스, 2014.03.07.).

최근 관광분야에서는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빅데이터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생성되는 정보들은 관광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류시영, 유선욱, 2017). 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가지는 경험, 생각, 정보, 의견 등을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개방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관광객들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있어 점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소셜 미디어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조화순, 김정연, 2012).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은 관광정보 탐색, 수집, 평가하고 최종적인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셜 미디어의 관광객 이용은 관광지의 정보 탐색과 최종적인 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한진성 · 윤지환, 2016). 또한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중 정보의 수집에서 관광객은 다양한 경험자의 의견과 인식을 통해 이미지를 체계화시키고 최종적인 이미지는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의 활용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내용의 질적인 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이수진 & 전유나, 2016).

최근 다양한 분양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광분야에서도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관광 유형 파악, 관광정책 도출, 관광추진 방향, 관광객 인식 조사, 관광분야 수요예측 등에 있어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연택(2014)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정책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관광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광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광거버

넌스의 형성과 사회적 협력을 강조 했다. 이수진 · 전유나(2016)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도 관광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관심사를 조사 · 분석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오익근 외(2015)는 SNS빅데이터를 통해 1년간 국내 관광 환경 변화와 관광객의 인식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거버넌스의 형성은 독단적인 정부의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과의 협력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2.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비정형 데이터인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텍스트 분석 방법을 말한다. 텍스트 마이닝의 여러 기법 중 하나인 토픽모델링은 문서에 속한 단어들로부터 의미를 추출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는 텍스트 문서의 집합에서 의미 있는 토픽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비지도 기계학습 테크닉으로(Blei, Ng & Jordan, 2003), 사람의 지도 없이 많은 양의 문서 모음(document collections)에서 주제별 구조를 학습하는 방법이다(Arora et al., 2013). 또한, 토픽모델링은 문서를 토픽의 혼합체로 인식하고, 문서에서 단어 동시 출현 패턴을 포착하여 텍스트 코퍼스(corpus) 내에서의 주제를 보여준다(Cheng et al., 2014). 토픽모델링 중 대표적 방법론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이다. 주로 문헌정보학, 사회학, 산업공학, 기술경영학 등 동향 분석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27]; [28]; [29]; [30]).

최근 소셜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토픽 모델링은 컨텐츠 특성, 사건 추적, 컨텐츠 추천, 영향력 있는 사용자 예측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컨텐츠 분석에 활용되었다(Cheng et al., 2014).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여러 면에서 가치가 있으나 공유되는 방대한 양의 컨텐츠와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변형은 가치가 높은 주제의 파악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Lo, Chiong & Cornforth, 2017).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고 개념을 추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시각화에도 유용하다(Paranyushkin, 2011). 텍스트 마이닝은 논문 동향 분석(Yoon et al., 2018; Yang et al., 2018; Abuhay et al., 2018), 트위터 및 블로그, 고객 온라인 리뷰를 포함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언론 매체의 빅데이터 등 다양한 비정형 텍스트데이터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Valdez, Pickett & Goodson(2018)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LS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Hillary Clinton과 Donald Trump의 2016년 미국 대통령 토론 기록을 분석하였다.

비정형 문서 수집을 통해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토픽 모델의 잠재력은 사회과학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Quinn et al. (2010)은 10만 건이 넘는 연설에 토픽 모델을 적용하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상원 의제를 자동 분류하였다. 이 방법은 국방 또는 낙태와 같은 유추된 주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Roberts et al. (2014)는 개방형 설문조사 응답(open - ended

responses)의 분석에 구조적 토픽 모델(Structural Topic Model, STM)을 적용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보다 쉽게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LDA 토픽 모델링을 분석에 활용한다.

3. 텍스트 마이닝 활용한 의제설정

정책의제(policy agenda)란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논의되는 과정(Anthony, 1972)으로, 대중과 정부 공무원의 관심을 끄는 문제, 원인, 상징, 해결책 및 기타 공공문제 요소에 대한 이해의 집합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제 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을 바탕으로 정책 의제 설정에 접근하고자 한다. 의제 설정 이론은 McCombs & Shaw(1972)의 연구를 시작으로 발전해온 매스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그들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 사건, 이슈일수록 실질적 중요성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정치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현대의 의제설정과정은 사회 문제를 정부가 주도하여 의제화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주도의 주체가 정부와 비정부에 따라 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이지호와 이덕로, 2013). 선진국일수록 다원화된 국가의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의제설정과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외부주도형은 정부 외부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요구나 피해를 받는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사회 문제로 쟁점화하므로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정부가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과정이다(Cobb et al., 1976). 이런 의제설정과정 모형에서는 정부에 대해 이익집단들의 요구 압력이 크고 정부가 이들 집단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적 시스템에서 많이 나타난다.

최근 매스미디어 또는 소셜미디어는 국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에 대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남궁근, 2008). 또한 매스미디어는 다양한 이슈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2011년의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 초반의 경우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 보다 지지율이 높았으나 나경원 후보의 부정적인 내용의 소셜미디어 내용이 다량 유통되면서 최종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셜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원이며, 이는 소셜미디어가 의제설정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홍유정과 황주성, 2015).

소셜 미디어의 속성인 텍스트 데이터는 이미지, 음성, 영상, 텍스트 등으로 구성된 비정형데이터(unstruc - tured data)이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과제 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제를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정책 입안자가 대중, 미디어 및 이익 집단을 포함하여 정책 이해 관계자의 관심과 정서를 연구자의 주관적 의도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안주영 외(2016)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트위터 분석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을 위한 영향력 있는 채널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검색과 텍스트 마이닝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고 하였다. Wormell(2000)은 텍스트 마이닝이 학술지, 신문 기사 및 입법 문서에 대한 개념 또는 아이디어의 진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Ngai & Lee(2016)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이슈 트래킹(issue tracking)을 통해 미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추적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트렌드 분석은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에서 생산되는 텍스트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결과를 탐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Park & Yong(2017)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하여 한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국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보도자료와 원자력 정책에 관한 Korea Energy Master Plan (KEMP)간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3차 에너지 마스터 플랜(2018) 기간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제기될 정책 이슈를 검토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책 의제 관련 선행연구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정책의제 관련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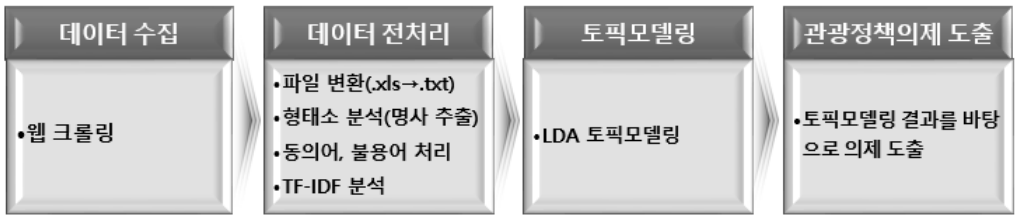
저자	년도	논문명	분석방법	연구내용
조화순 김정연	2012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과 참여의 커뮤니케이션: 반값등록금 관련 블로그와 트위터 내용분석	연관어 분석, 내용 분석	대학교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의제가 설정되고 논의되는 방식을 분석하여 인지구조를 파악
신안나	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키워드 및 토픽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책단계별로 자유학기제 정책의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
차민경 권상희	2015	언론의 '창조경제'에 대한 의제설정 의미연결망 분석	연결망 분석, 시계열 분석, 온라인 뉴스 기사	- 창조경제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경향을 시기별로 분석 - 국정 주요 의제인 창조경제가 언론을 통해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분석
이은미 외	2016	정책아이디어의 경쟁과 변화에 관한 미시적 고찰	키워드 빈도 분석, 대응 분석	정책아이디어의 변화를 실증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정제·분석
Tobback et al.	2018	Belgia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Improvement through text mining	Naïve, Modality Annotation, Support Vector Machine(SVM),	정책 관련 21만개의 뉴스 기사을 활용하여 측정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기존의 정책 불확실성 측정 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분류 모델을 구축하여 기존의 정책 불확실성 지수 개선을 시도
Shirota et al.	2015	Topic Extraction Analysis for Monetary Policy Minutes of Japan in 2014	Latent Dirichlet Allocation,	2014년 4월 판매세 인상 직후 2014년 11월까지 일본 중앙 은행(the central bank of Japan)과 일본 은행(the Bank of Japan)의 통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세금 인상 후 화폐 완화 정책 토픽 비율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 관련 주제 비율이 세금 인상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azard et al.	2017	Public reactions to e-cigarette regulations on Twitter: a text mining analysis	Topic Analysis	- 토픽 추출을 통해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파악 -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언론기사에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공중보건 옹호자들은 정책 의도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을 제안

Ⅲ. 연구방법 및 결과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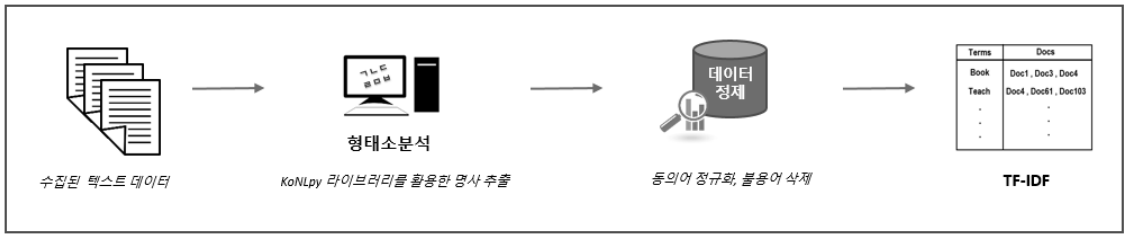
첫 번째 단계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법을 사용하여 흰여울문화마을 구글맵 리뷰 중 2019년 10월 31일 기준 수집 가능한 모든 텍스트 데이터 1162건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분석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거친다. 데이터 전처리는 [그림 3-2]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단계 중 형태소 분석은 Python의 KoNLpy(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토큰화(tokenization)하였다. KoNLpy 라이브러리는 Okt, Komoran, Kkma, Hannaum, Mecab를 포함한 총 다섯 가지의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다. 토큰화는 단어를 분리하는 단계로 사용하는 형태소에 따라 단어가 분리되는 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토픽모델링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자는 연구의 특성에 맞는 형태소 분석기를 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박준형과 오효정, 2017).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토큰화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Okt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하였다.

둘째, 토큰화 한 단어에서 여러 가지 품사 중 토픽모델링에 필요한 명사만 추출하였다. 이 단계에서 엑셀파일의 형태로 저장된 리뷰데이터는 자체 개발한 Python 언어로 작성된 토픽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에 적합하도록 텍스트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셋째, 추출된 명사를 스크리닝하여 정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흰여울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흰여울문화마을’은 불필요한 단어이므로 제거하였다. 또한 ‘곳’, ‘좀’, ‘것’ 등과 같이 문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면서 무의미한 단어를 제거하였다. 이모티콘, 특수문자 등 분석에 불필요한 정보도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오탈자 및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가 있는 단어(갠춘→괜찮음, 폭팔→폭발)를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같은 뜻을 가졌으나 다르게 표현된 동의어를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였다(예:까페→카페, 뷰→경치). 마지막으로 ‘노 부부’→’노부부‘, 파도 소리’→‘파도소리’ 등과 같이 한 단어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좋은 분리된 단어를 묶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TF-IDF를 기반으로 한 벡터화 단계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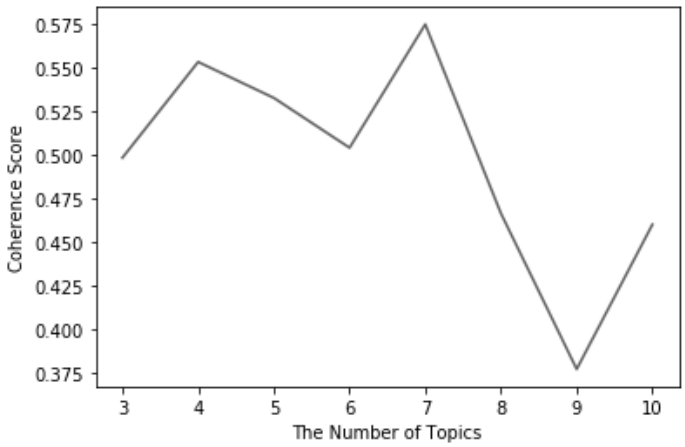
다음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는 벡터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큰화를 통해 추출된 명사로 토픽모델링의 수행을 위하여 Python Scikitlearn의 TfidfVectorizer를 활용하여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로 벡터화하였다. TF는 문서 내에서 단어가 얼마나 출현하였는지 즉, 단어의 출현빈도를 나타낸다. DF는 문서의 집합에서 단어가 얼마나 출현하는가를 표현한 값인데 IDF는 이와 반대로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지 않는가를 나타낸다. TF-IDF는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단어의 출현 횟수가 아닌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수도 포함하여 가중치를 계산한다. TF-IDF는 모든 문서에서 자주 출현하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며, 특정 문서에서만 자주 출현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TF-IDF 값이 낮으면 중요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TF-IDF 값이 클수록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유원준, 2019). 이렇게 산출된 TF-IDF 값을 토픽모델링에 활용하였다.



[그림 2] 데이터 전처리 과정

2. 토픽모델링

구글맵 리뷰의 토픽 분석을 위해 위와 같이 전처리 과정을 끝낸 텍스트파일을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토픽을 추출하였다. 토픽 모델링 수행을 위해 토픽 수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연구자가 여러 가지의 토픽 수로 분석한 후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토픽 수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Song & Kim, 2013), perplexity(혼잡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coherence(응집도) 수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Coherence는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이 얼마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Alters & Stevenson, 2013). Coherence 값이 클수록 토픽모델링의 결과로 추출된 각 주제가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herence score를 사용하여 토픽의 수를 7개로 결정하였다([그림 3-3] 참조). 이와 더불어 토픽모델링에 필요한 파라미터 α, β는 연구자가 설정한 값의 변화에 따라 토픽모델링의 결과 또한 달라지는데(박종도, 2019) 본 연구에서는 α, β = auto, iteration(반복 횟수) = 1,000회로 설정하였다.



[그림 3] Coherence score

앞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7개의 토픽과 각 구성 키워드들이 나열되어있다. 이 때 각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 순서는 토픽모델링 분석에서 나온 키워드의 확률값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높이 위치한 키워드일수록 특정 토픽에 나타나는 확률값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토픽별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표에 제시하고 토픽의 레이블을 달았다. 토픽의 레이블은 연구자가 각 토픽별 키워드 구성을 보고 판단하여 정하는 것으로 표에서 제시된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가장 잘 함축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연구자가 지정하여 토픽 번호와 함께 제시하였다.

총7개의 토픽 중 1개는 부정적 내용이었으며, 나머지 6개의 토픽은 긍정적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opic 1은 흰여울문화마을 방문객들의 볼거리에 대한 키워드들로 구성되었다. Topic 2와 Topic 7은 토픽 내 키워드를 살펴보면 흰여울문화마을에 대한 관광객들의 감성을 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opic 2는 정서적이미지 중 긍정적 의미를 가진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Topic 7은 ‘여름’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살펴본 결과 ‘여름에는 덥고 습하니 주의하시길’, ‘여름에는 많이 걸어야 해서 힘들어요.’와 같은 부정적 의미로 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Topic 4와는 달리 Topic 2는 부정적 키워드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들은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관광객들이 리뷰를 남길 때 긍정적 문장과 부정적 문장을 혼재하여 글을 작성하므로 같은 토픽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픽모델링은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단어의 동시출현확률을 계산하여 토픽을 분류하는 기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TF-IDF 값을 기반으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TF-IDF 값을 얻기 위하여 문서 내 단어출현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문서를 문장 단위로 정하지 않고 문장의 수와는 관계가 없이 한 사람의 관광객이 남긴 리뷰를 하나의 문서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Topic 3은 ‘연인’, ‘가족’, ‘촬영’, ‘여행’, ‘데이트’, ‘친구’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행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Topic 4를 살펴보면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주차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Topic 5는 ‘명소’, ‘최고’, ‘방문’, ‘강추’ 등 관광객들의 추천의도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Topic 6은 흰여울문화마을의 특징 중 하나인 건축적 특색이 반영된 주제이다. 토픽 내 키워드 중 ‘건물’, ‘한국’, ‘정취’ 등으로 보아 구도심을 보존하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의 심미적 요소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2] 토픽모델링 결과

Topic1 볼거리	Topic2 정서적이미지 1	Topic3 여행목적	Topic4 주차불편	Topic5 추천	Topic6 건축물	Topic7 정서적이미지 2
터널	파도소리	연인	주차장	명소	관광지	여름
바람	운치	가족	정도	최고	건물	추억
볼거리	유명	촬영	버스	감성	한국	전망
경관	마음	여행	거리	일몰	정취	최고
주변	친절	데이트	이용	방문	모습	라면
남항	기대	친구	부족	강추	공사	기대
자연	기분	일몰	방문	바닷길	자리	인생
방문	기억	변호사	대중교통	골목골목	개발	시절
대교	건물	재미	도로	절벽	문화	한눈
해안가	가슴	관광지	가게	일요일	절영	바닷바람

[표 3] 토픽별 비중도

토픽	비중도(%)
Topic 1	11.73
Topic 2	8.08
Topic 3	9.42
Topic 4	11.44
Topic 5	10.77
Topic 6	9.23
Topic 7	39.33

[표 3]은 전체 문서에서 각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문서에서 Topic 7이 가장 높은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Topic 1, Topic 4와 Topic 5가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Topic 7 외에 다른 토픽들의 비중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opic 7에 속한 키워드들이 중요하게 많이 언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중의제로서의 관광정책의제 도출

지능정보시대가 도래하고 인터넷의 빠른 확산과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시민은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정책의제형성의 직접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시민참여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전자 게시판 등의 사이버 공간이다. 사이버 의제란 사이버 공간에서 제기되는 의제이다. 사이버 의제는 기자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정보 등과 같이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홍성운, 2009). 본 연구에서 활용한 관광객 리뷰는 관광지를 방문한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중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공중의제(public agenda)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추출된 토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제 도출을 할 수 있다. 첫째, Topic 4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객의 주차불만이 한 주제로 도출될 만큼 주차공간의 확보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흰여울문화마을은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안 절벽과 언덕 위에 위치한 지형적 특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과 점차 늘어나는 방문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국제신문, 2019). 개발되지 않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관광 컨셉인 만큼 도로나 주차장, 편의시설도 부족하다(중앙일보, 2018). 둘째, 흰여울문화마을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여름철 관광객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음수대 비치, 그늘막과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Topic 7은 가장 비중이 높은 토픽으로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위 키워드 중 ‘여름’이라는 키워드가 토픽 내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 리뷰를 살펴보면 흰여울문화마을 관광 중 여름에는 날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광객 불편사

항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셋째, 구도심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정책으로 형성된 흰여울문화마을이 본래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해야한다. Topic 6에서 알 수 있듯이 옛 정취가 잘 보존되어 있는 점과 절영해안을 따라 형성된 마을의 지형적 특색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흰여울문화마을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Topic 1은 관광객들이 방문시 흰여울해안터널, 절영해안산책로, 남항대교 등 여러 볼거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형적 특색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다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 중 관광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객 또는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관광분야에서의 소셜 빅데이터 활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흰여울문화마을 관광객 온라인 리뷰 1162건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LDA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되어 총 7개의 토픽으로 추출되었다.

분석 결과 Topic 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관광객의 정서적 이미지를 나타낸 리뷰가 주를 이룸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개의 토픽 중 1개의 토픽은 관광객의 부정적 감성을 나타낸 토픽으로 주차불편에 대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추출된 토픽을 바탕으로 관광정책의제설정을 위한 관광객들의 공중의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광정책의제로 주차공간의 확보와 개선을 위한 노력, 여름철 관광객을 위한 음수대 비치, 그늘막과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 흰여울문화마을의 옛 정취를 보존하기 위한 관리, 지형적 특색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 등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객관화되고 자동화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의 관광정책의제 도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Coherence score를 근거로 최적의 토픽 수를 찾아내고, LDA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토픽을 추출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많은 양의 문서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토픽모델링 기법의 활용으로 더욱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부산시가 추진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흰여울문화마을에 대한 관광객 및 시민 인식의 파악을 통한 공중의제로서의 관광정책의제 도출을 통해 부산시의 관광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관광정책은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이나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통계자료 등의 정량화된 수치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직접 작성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객들이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관광정책관련 부서의 담당공무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통해 관광정책의제를 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 기법인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방법에서 벗어나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광객이 직접 작성한 내용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였다. 관광객이 남긴 리뷰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관광객 수, 이동경로 등 여러 가지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관광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한계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 후의 관광객 인식을 비교하여 관광정책 평가의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 활용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 획득이 어려우므로 데이터의 확보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했던 구글맵 리뷰 데이터와 더 많은 리뷰 데이터를 추가하여 공중의제를 도출한다면 정부의 관광정책의제 설정에 보다 효과적인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흰여울문화마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추후 분석대상 관광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부산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뉴스(219.05.06). 꼼수 단체관광 · 쓰레기 투척…원도심 마을 주민 ‘ 몸살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507.22009002431

김상겸 · 장성용(2016).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국내 산업경영공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경영공학회지, 21(3), 71 - 95.

남궁근(2008). 정책학: 이론과 경험적 연구, 파주: 법문사.

류시영 · 유선욱(2017).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강원도 관광에 대한 인식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 63 - 81.

머니투데이(2013.09.25.).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심야버스 대통령상 수상.

박종도(2019). 토픽모델링을활용한다문화연구의이슈추적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273 - 289.

박주섭 · 홍순구 · 김종원(2017).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과학기술동향 및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2(4), 19 - 28.

박준형 · 오효정(2017).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법 비교: LDA와 HDP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48(4), 235 - 258.

박지현 · 송민(201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1), 7-32. https://doi.org/10.3743/KOSIM.2013.30.1.007

설동훈 · 고재훈 · 유승환(2018). 한국사회학회와 사회학연구, 1964 - 2017년. 한국사회학, 52(1), 153 - 213.

신안나(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키워드 및 토픽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주영 · 안규빈 · 송민(2016).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매체별 에볼라 주제 분석: 바이오 분야 연구논문과 뉴스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289 - 307.

오병진(2011).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연구: 도입 가능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익근 · 장미화 · 윤영일(2017).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구 음식에 대한 인식. 관광레저연구, 29(11), 377 - 397

이수진 · 전유나(2016).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 인식 조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8(1), 83 - 109.

이연택(2014).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시대의 개막 조건. 한국관광정책, (57), 4 - 7

이은미 · 김동욱 · 고기동(2016). 정책아이디어의 경쟁과 변화에 관한 미시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25(4), 221 - 240.

이지호 · 이덕로(2013). 근로빈곤층 정책의 의제설정에 관한 모형 비교: Cobb 의 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75 - 103.

정동섭 · 박풍식(2008). 영업사원 역량 및 조직구조와 성과의 관계.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 - 6.

조화순 · 김정연(2012).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과 참여의 커뮤니케이션: 반값등록금 관련 블로그와 트위터 내용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2), 95 - 130.

중앙일보(2018.10.04). [지역이슈]부산 문화마을 원주민 오버투어리즘에 '몸살'. https://news.joins.com/article/23017116

차민경 · 권상희(2015). 언론의 ‘창조경제’에 대한 의제설정 의미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59(2), 88 - 120.

폴리뉴스(2014.03.07.).언론과 관광의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진성 · 윤지환(2016). 소셜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 닝을 활용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제 개최 전、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1), 133 - 145

홍성운(2009).온라인 상의 정책의제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109 - 132.

홍유정 · 황주성(2015). 정책의제설정에서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1), 115 - 151

Song, M., & Kim, S. Y. (2013). Detecting the knowledge structure of bioinformatics by mining full - text collections. Scientometrics, 96(1), 183 - 201.

Aletras, N., & Stevenson, M. (2013, March). Evaluating topic coherence using distributional semantics. In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Semantics (IWCS 2013)–Long Papers (pp. 13 - 22).

Downs, A. (1973). Up and down with ecology. The “issue attention” cycle. The politics of american economic policy making, 48.

Blei, D. M., Ng, A. Y., & Jordan, M.(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 - 1022.

Born, J., Scheihing, E., Guerra, J., & C□rcamo, L.(2014, September). Analysing Microblog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European Conference on Technology Enhanced Learning (pp. 15 - 28). Springer, Cham.

Cheng, X., Yan, X., Lan, Y., & Guo, J.(2014). BTM: Topic Modeling over Short Texts.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26(12), 2928 - 2941. doi:10.1109/TKDE.2014.2313872

Cobb, R., Ross, J. K., & Ross, M. H.(1976).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126 - 138.

Deerwester, S., Dumais, S., Landauer, T., Furnas, G., & Harshman, R.(1990). Indexing by Latent Semantic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ce, 41(6), 391 - 407.

Hofmann, T. J. M. L.(2001). Unsupervised Learning by 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42(1), 177 - 196.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23/A:1007617005950.

Hu, Y., Boyd - Graber, J., Satinoff, B., & Smith, A.(2014). Interactive Topic Modeling. Machine Learning, 95(3), 423 - 469.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07/s10994 - 013 - 5413 - 0.

Lazard, A. J., Wilcox, G. B., Tuttle, H. M., Glowacki, E. M., & Pikowski, J.(2017). Public Reactions to E - cigarette Regulations on Twitter: A Text Mining Analysis. Tobacco control, 26(e2), e112 - e116.

McCombs, M. E., & Shaw, D. L.(1972). The Agenda - 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 - 187.

Ngai, E. W. T., & Lee, P. T. Y.(2016, Jun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Applications of Text Mining in Policy Making. In PACIS (p. 343).

Park, C., & Yong, T.(2017). Prospect of Korean Nuclear Policy Change Through Text Mining. Energy Procedia, 128, 72 - 78.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Semantics(IWCS), Potsdam, Germany, 2013

Quinn, K. M., Monroe, B. L., Colaresi, M., Crespin, M. H., & Radev, D. R.(2010). How to Analyze Political Attention with Minimal Assumptions and Cos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1), 209 - 228.

Roberts, M. E., Stewart, B. M., Tingley, D., Lucas, C., Leder-Luis, J., Gadarian, S. K., & Rand, D. G.(2014). Structural Topic Models for Open-Ended Survey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4), 1064 - 1082

Shi, Z., Lee, G. M., & Whinston, A. B.(2016). Toward A Better Measure of Business Proximity: Topic Modeling for Industry Intelligence. MIS Quarterly, 40(4), 1035 - A1053. Retrieved from http://search.ebscohost.com/login.aspx?direct=true&db=bth&AN=119473816&lang=ko&site=eds - live.

Shirota, Y., Hashimoto, T., & Sakura, T.(2015, July). Topic Extraction Analysis for Monetary Policy Minutes of Japan in 2014. In Industrial Conference on Data Mining (pp. 141 - 152). Springer, Cham.

Tobback, E., Naudts, H., Daelemans, W., de Fortuny, E. J., & Martens, D.(2018). Belgia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Improvement Through Text M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34(2), 355 - 365.

Wormell, I.(2000). Critical aspects of the Danish Welfare State—as Revealed by Issue Tracking. Scientometrics, 48(2), 237 - 250.

Zhai, Z., Liu, B., Xu, H., & Jia, P.(2011, May). Constrained LDA for Grouping Product Features in Opinion Mining. In Pacific - Asia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pp. 448 - 459). Springer, Berlin, Heidelberg.